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4호 HYUNBULNEWS.COM 2025년 6월 11일(음력 5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사진①


사진②


사진③


사진④


사진⑤

조계사 일주문 '활짝' 총본산 위용 되찾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의 일주문이 40여 년 만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일주문의 절반가량을 가리고 있던 건물 '동양금박'이 철거되면서 총본산 위상에 걸맞은 위용을 갖추게 됐다.〈사진①〉

1910년 '각황사'로 창건된 조계사에 일주문다운 일주문이 세워진 건 불과 20여 년 전. 경내 출입문 역할을 하던 나무문이 1984년 해체됐고〈사진②〉, 이후 전통 양식의 구조물이 세워졌으나 주변 주택과 상가 등에 둘러싸여 좁은 골목을 지나야 경내에 들어설 수 있었다.〈사진③〉

이에 조계사는 1990년부터 주변 부지 매입에 나섰고, 2004년에는 '조계사 성역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여법한 문'으로서의 일주문 건립도 포함됐다.

2000년, 조계사 사부대중은 일주문을 세우기 위한 1000일 기도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01년 부지 매매계약 체결, 2002년 부지 매입, 2005년 기공식을 거쳐 2006년 일주문이 완공됐다.〈사진④〉

하지만 건립 당시 부지(15평 규모)가 협소해 동양금박 건물과 밀착돼 있었다.〈사진⑤〉 조계사 사부대중은 일주문 전면 개방을 위해 또 한 번 원력을 결집했고, 오랜 노력 끝에 올해 5월 동양금박 건물 철거가 이뤄졌다.〈사진②③④⑤=조계사 제공〉 김내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불교계 "국민 위한 정부되길"

신중일 · 임은호 기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4일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 자리를 지켜온 이재명 대통령은 49.42%(1728만7513표)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회의를 열고 오전 6시 21분 이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확정했다.

당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밝힌 취임사를 통해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역설하며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당선 직후 조계종, 태고종 등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잇달아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이 대통령에게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달라"고 축하와 당부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4일 발표한 축하메시지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소중한 계기"라며 "힘들고 고단했던 질곡의 여정을 넘어, 이제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 뜰에 곱고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분열과 대립을 뒤로하고 통합과 치유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국정 운영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줄 것"을 당부한 스님은 "조계종은 국민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사회 화합을 위해 새 정부와 함께 뜻을 모아 나가겠다. 국민이 늘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와 긴밀히 소통해 온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축하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내란극복과 국민통합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이 대통령에 대해 "힘든 유년시절의 어려움과 숱한 인생의 고난을 오로지 민

제21대 대선에서 49%로 당선
4일 취임선서…임기 바로 시작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지도자들
李대통령 당선 직후 축하 전해
종지협 "정의로운 나라 기대"

생과 정의를 위한 일념으로 극복해온,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할 '인욕행(忍辱行)'의 실천자"라고 상찬하며 "당선자의 승리는 곧 우리 국민이 다시 한 번 자유와 평등, 정의와 연민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한 민심의 표현"이라고 이번 대선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행(慈悲行)을 본받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공존과 상생의 복지국가, 계층 간 위화감을 줄이는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을 이끌어 달라"며 "태고종은 새 정부가 국난을 수습하고 도약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불자의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축하메시지에서 "정치적 연륜이 깊으신 만큼 국론 분열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립과 반목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정치를 펼쳐주시리라 기대한다"며 "천태종은 날마다 국운의 융창을 부처님 전에 발원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축하논평에서 "지금 국내의 정치와 경제 상황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시기다. 정치는 안정되게, 경제는 원활하게, 외교와 국방은 든든하게 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바로 서는데 기여하는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은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을 살뜰히 보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시작이 경제회복,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하며 "통일 한국의 남북공간 자유 왕래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녘의 동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철폐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확장되어 새로운 경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역시 "분열이 아닌 화합, 배제가 아닌 포용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원한다"며 "총지종은 새 정부가 만들어갈 희망의 길에 마음을 모아 함께 정진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등 주요 종교 지도자 단체의 축하도 이어졌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품는 열린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의 길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선 특집 3면〉

대한불교진흥원 2025년 하반기
• 4대 공모사업
•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제22회 대원상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30일(화)

제11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6월 23일(월) ~ 7월 18일(금)

제11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6월 30일(월) ~ 7월 25일(금)

제12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22일(금)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
2025년 9월 2일 개강
접수 기간 : 2025년 8월 1일 ~ 9월 2일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 추진과목 포함 강의 진행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학생 모집
2025년 9월 9일 개강
접수 기간 : 2025년 8월 1일 ~ 9월 9일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도록
강의 영상 제공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

‘출가 전 이력 따른 소임 제한법’ 상정 보류

종헌특위, 6월 4일 제11차 회의서 결정
내부 비판 다수…의견수렴 후 발의키로
‘사찰법’ ‘호계원법’ 개정안 등 최종 점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헌특위)가 최근 성안한 결혼 등 출가 전 이력 기준으로 소임을 제한하는 종법 개정안을 6월 1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키로 했다. 종헌특위는 관련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한 후 더 세밀하게 의견을 모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종헌특위는 6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6월 10일 개회하는 2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만당 스님은 종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눈 후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최근 성안한 승려사정 ‘갑을병정’으로 인해 소임 제한을 받는 스님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종단 구성원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차별 등 여러 의견이 나오는 만큼 종도들의 의견을 취합해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광 스님은 “이번 제안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종책모임 선우회가 이에 대해 발표한 성명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만당 스님은 “좀 더 논의해 확실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기를 봐야한다”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세밀하게 판단해 비판받을 소지를 없애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광 스님은 “앞으로 ‘병’ 출가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상속 유류분 관련 분쟁이 많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임 제한은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종도들의 우려가 큰 만큼, 발의를 보류하고 더 깊이 논의해서 법안을 다듬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가 전 이력 기준으로 소임을 제한하는 종법 개정안은 6월 임시회에서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종헌특위는 3월 임시회에서 이월된 사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사찰법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보완된 수정안이 올라왔다. 만당 스님이 제안한 사찰법 제23조 중창주 권리에서 6항 ‘쇠락하고 피폐한 공찰의 사격 및 역할을 현격히 격상시킨 경우’에서 ‘사격을 현저히 격상시킨 경우’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서다.

만당 스님은 “쇠락한 공찰의 사격을 일신해도 그 공로가 인정되거나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찰 주지를 하면서 인근에 사설사암을 창건해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인해 사찰이 피폐해지거나 어려워져 형해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서 “또한 선거 후 논공행상에 따라 열심히 가람수호와 포교, 지역사회활동을 해 사찰을 발전시키고 있는 주지를 교체함으로써 사찰이 일순간에 그 위상이 추락하는 문제점들을 중창주 권리 안정을 통해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종헌특위는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상황을 종법 상으로 규정하고 총무원, 호계원, 종단 산하기관 등에서 자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종앙종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림 방장 후보 선출시 산종 총의를 모으기 어려울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 초심호계위원 2인을 증원해 9인으로 하는 ‘호계원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제234회 임시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종헌 개정의 건 △불기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등이 다뤄진다.

조계종·흥국생명 제례문화 확산 MOU

6월 5일, 웰니스문화산업 육성 업무협약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김대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례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올곧은 제례문화 정착과 확산을 도모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조계종과 흥국생명은 불교 전통 제례문화 보급 및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웰니스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치유, 평안,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제례의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서로 좋은 작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현 대표이사는 “서비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명상 홍보와 대중화에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제18대 종회의원 보궐선거 우경 스님 선출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 6월 4일 만장일치 결정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사회) 보궐선거에서 우경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6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영조 스님, 성월 스님, 원명 스님, 호산 스님, 계호 스님 등 선출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5월 21일 제418차 회의를 열고 단독출마한 우경 스님의 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정한 바 있다.



우경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3년 범어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사성암 주지다. 임은호 기자

밀교신문 27대 편집인 청효 정사 위촉

진각종, 5월 29일 위촉식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5월 29일 밀교신문 제27대 편집인에 통리원 기획실장 청효 정사를 위촉했다. 제32대 집행부 제1기 기획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청효 정사는 서원도량과 탑주심인당 교화보조를 거쳐 수계심인당, 식재심인당, 상륜심인당, 아축심인당 주교를 역임하고 현재 혜원심인당 주교로 있다.

청효 정사는 기획국 법무팀, 제34대 사감위원(간사), 제38대 현정부장, 현정원장직무대행, 기획실 기획위원, 예경실장, 대한불교진각종 유지재단 감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감사, 종의회 사무국장과 사무처장, 제13대 종의회 2차 종헌종법개정위원(간사), 제14대-15대-16대 종의회 의원, 제15대 종의회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 제16대 종의회 행정사회상임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연화회와 불교장례문화 개선 MOU

연화회, 출장 다비·영결식 총괄
본지, 행장 정리·제작·홍보 지원



현대불교신문과 연화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불교 장례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현대불교신문이 불교장례전문업체 연화회와 불교장례문화 개선에 나선다. 본지(대표이사 한명우)는 6월 4일 서울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연화회(대표 유재철)와 ‘불교장례문화 개선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연화회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전통 불교장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비식과 영결식의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며, 본지는 장례 시 고인 행장 정리, 취재 및 보도, 영결사·조사 등 원고 작성, 리플릿 제작, 홍보 및 의전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본지와 연화회는 이번 불교장례문화 개선사업 전담 인력을 배정해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연화회는 1994년 조계사 앞에서 불교 장의사로 시작해 그동안 수천명의 스님들과 불자들의 다비식과 불교장례를 진행했다. 불교장례용품 12가지를 개발, 특허 3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전국 470여 사찰의 스님들의 장례와 다비를 봉행했다. 또 5명의 대통령 염습과 국가장 의례도 진행한 바 있다. 연화회는 2013년 전통식 다비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연화다비’를 개발, 사찰 등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출장 다비를 진행하고 있다.

유재철 연화회 대표는 “스님의 입적 후 여법한 장례 절차 뿐만 아니라 생전 가르침과 법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일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대불교신문이 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선양하는 데 함께 나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는 “본지는 스님들이 삶에서 보여준 가르침을 전하는 한편 불교장례문화가 시대에 맞게 재정립, 불자들까지도 신행의 연장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승가사 주지에 자항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 6월 4일 임명장 전달

조계종 직할교구 서울 종로구 승가사 주지에 자항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자항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가람 수호에 힘쓰고 전법포교를 여법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자항 스님은 정호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운문사승가대를 졸업했다. 임은호 기자

불기2569(2025) 을사년

해인사 生前預修齋 49일 기도

천년을 이어온 법보의 향기, 팔만대장경의 진리가 숨 쉬는 도량,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회와 발원을 통해 내세의 안락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동안 지은 허물과 업장을 깊이 참회하고 지극한 신심으로 공덕을 닦아 내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인연을 짓는 큰 복전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생전예수재에 수희 동참하시어, 모든 업장 소멸하고 상서선망 조상의 왕생극락과 가족,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운영법주 해인사 주지 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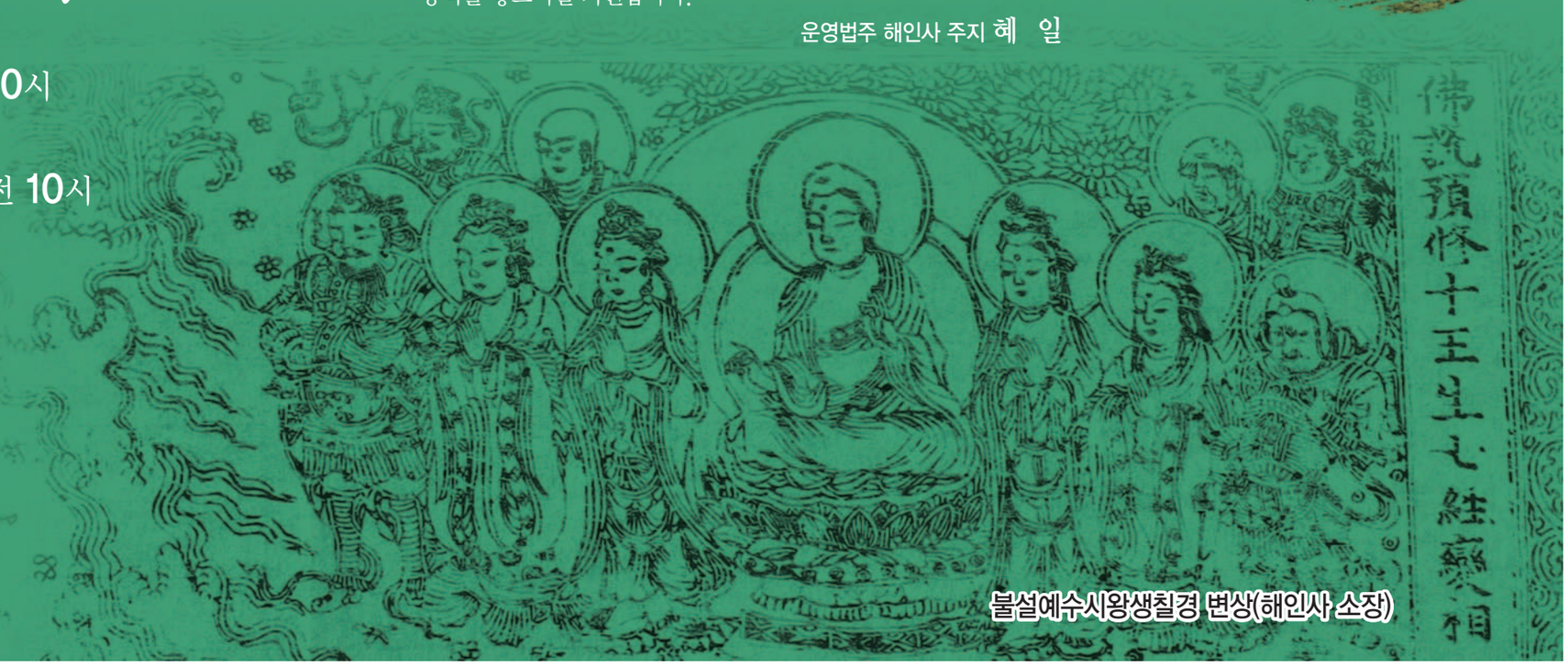


입재 7월 5일(음 6/11) 토요일 오전10시
초재~6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막재(회향) 8월 22일(윤 6/29) 금요일 오전 10시
법회장소 해인사 대적광전 및 만불보전

동 참 금		
생 축	1인 3만원	
영가위패	1위 1만원	
설 판	大설판 100만원	中설판 50만원

▪문의 및 접수 접수실 055)934-3105~6
▪계 좌 안 내 농협 351-0744-6572-93 (예금주 : 해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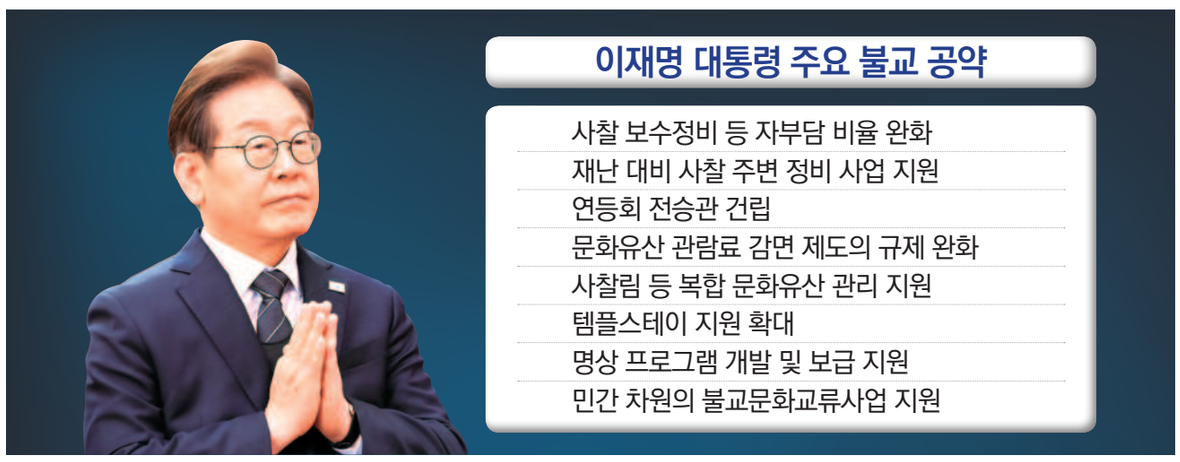
법보종찰 해인사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변상(해인사 소장)

이재명 불교 공약 '전통문화 보존 강화' 초점

5월 5일 불교계 공약 발표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부터
연등회 전승관까지 약속해
조계종, 사찰 규제 완화 등
문화진흥 및 현안 해결 요구
태고종 "종단 형평성 반영"



이재명 대통령 주요 불교 공약

- 사찰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 재난 대비 사찰 주변 정비 사업 지원
- 연등회 전승관 건립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제도의 규제 완화
- 사찰림 등 복합 문화유산 관리 지원
-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교류사업 지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발표한 불교계 정책 공약의 슬로건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여느 후보보다 빠르게 불교 정책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한 '불교문화지원 정책발표문'에서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전승·보존 토대 마련 △전통문화 가치 제고 및 전승·보존 정책 강화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 개선 △종교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대라는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 지원 △전통사찰 규제 개선 △연등회 전승관 건립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 완화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교류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문화유산적 가치로 보존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며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국민 행복' 정책 제안

이번 대선에서는 차기 정부에 불교문화 진흥과 현안 해결을 제언하는 불교계의 행보도 이어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사회통합 실현 △정책 구현의 4대 분야 18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조계종은 '국민 행복'을 견인할 첫 번째 과제로 '선명상 대중화'를 꼽았다.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명상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통사찰보존지 지목 현실화 △전통사찰(사찰림 포함) 소방·방재 종합대책 마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지원 체계 개선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방안 마련 △국공유지 대부료 납부 사찰에 대한 토지 불하 방안 마련 등이다.

사회통합 실현 부문에서는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과거사 치유 및 불교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용산공원 내 불교문화 시설 건립 지원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찰 피해 보상 △제주 4·3사건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 호국 보훈 정신 선양을 위한 호국기념관 건립 및 해외 안장 순국선열 유해 국내 봉환 추진도 정책으로 내놨다.

태고종 첫 대선 정책 제안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총무원장 직속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불교문화 보존과 전통문화 진흥을 골자로 한 정책 자료집을 제작·발표했다.

태고종의 정책 자료집에는 △사찰 중심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납골당 규제 완화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지원 확대 △불교문화유산 보존 지원 활성화 △공공기관 종교편향 방지 △영산재 국내외 초청공연 정례화 및 예산 확보 △종교문화행사 지원 강화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 등의 정책들이 담겼다.

특히, 태고종은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을 통해 특정 유형 종목에서 이뤄지는 인사·예산·조직 구성의 편중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이 제안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사찰 기반 노인복지 모델이다. 태고종은 "사찰은 전통적으로 고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명상, 기도, 쉼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 "사찰 실버스테이는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결합한 새로운 복지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고종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의 해외공연과 전승관 건립 등 보존 관련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태고종은 "197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는 한국불교 의례의 문화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첫 사례지만, 국가무형유산 지정 후 정부 지원은 다른 불교 의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영산재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 '태고무형유산센터' 건립이 이뤄져야 하며, 해외 초청 공연의 정례화를 통해 국내외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불교 인연은?

기독교인 "어머니 따라 사찰 고시공부"
탄핵 정국 19대 대선 때 불교계 '첫인사'
이번 대선 김 여사 전국 돌며 불심 잡기

올해 5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교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건 지난 2017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며 사실상 불교계에 첫인사를 했다. 이어 대선 직후인 2017년 7월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54회 미래복지포럼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후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 주요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거나 SNS에 봉축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연을 이어갔다. 다만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임원 직무 정지 및 해임 조치를 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언론보도와 달리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다시 조계종을 공식 방문한 건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정청래 의원이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식에 참석하고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빈소를 조문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의료대란 등 정치현안에 대한 불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불교계를 잇달아 방문하며 소통에 나섰다. 2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사회 혼란 수습에 종교계의 역할을 요청했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것이 후보자로서는 불교계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다. 그는 이날 봉축메시지와 불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봉축메시지에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 다양한 사상, 철학까지 각기 다른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로 아우르는 원융회통 정신으로 공존상생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겠다"고 밝혔다.

불교 정책으로는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전승·보존 토대 마련 △전통문화 가치 제고 및 전승·보존 정책 강화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 개선 △종교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불교 인연에 대해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구례 화엄사와 김천 청암사에서 고시공부를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불교계와 인연을 넓혀왔지만, 이번 대선에선 짧은 선거 일정 탓인지 불교계를 직접 방문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대신 부인 김혜경 여사가 광폭 행보에 나섰다. 기독교인인 김 여사는 이번 대선 기간 "전국 교구본사와 지역 주요 사찰을 순례하며 불교계와 소통했다"고 말할 만큼 불심(佛心) 잡기에 힘썼다.

김 여사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태고종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불교계 행사에 공식 참석하고 전국 사찰을 비공개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5월 12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와 함께 참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는 의미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한 번 두 번 이어지며 그 의미를 몸소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예술과 맞닿은 무산 스님 정신 계승해야”

5월 30일, 무산문화대상 시상식
권여선·양성원·이태석 재단 수상
“예술문화발전 촉매 역할 되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30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2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문학 분야 소설가 권여선, 예술 분야 첼리스트 양성원, 사회문화 분야 이태석 재단에 상을 수여했다.

무산문화대상은 한국문학과 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 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에서 5명씩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문학 부문 수상자 권여선 소설가는 작품 속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응시하면서도 연민과 공감의 끈을 놓지 않는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여선 소설가는 “3월 중순, 건강상 위험한 상황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상념에 있을 당시 무산 스님과 신경림 시인의 대화를 담은 ‘열흘간의 대화’라는 책을 읽으며 아픔 이겨냈다”면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라는 의미로 이 상을 받은 것 같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예술 부문 수상자 양성원 첼리스트는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와 예술적 영감을 대중에게 전해왔다. 양 첼리스트는 “수상을 계기로 무산 스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욱 선명해짐을 느꼈다”면서 “인간의 내면과 시대의 흐름을 성찰하는 예술, 다음 세대와 호흡하며 이어갈 수 있는 예술을 위해 조용히 정진하겠다. 예술이 지닌 고유의 가치와 울림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부문 수상자 이태석 재단은 다양한 봉사 활동과 지원사업으로 상생의 정신과 나눔의 고결한 의미를 사회에 전파하고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수환 이태석 재단 이사장은 “이태석 신부의 정신이 종교를 뛰어넘어 사랑, 섬김, 생명 존중 부분 등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다는 점이 놀랍다”면서 “이 상은 재단이 앞으로 사회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과 무산 오현 스님의 부도탑을 축소해 제작된 상패가 수여됐다.

권영민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 위원장은 “무산 조오현 시인은 평생 수도생활을 하며 사람과 사회, 종교 간 벽을 허물고 이념의 경계를 건너뛴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면서 “무산 스님의 삶을 기리며 제정된 무산문화대상이 우리 사회 예술문화발전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라오스서 ‘부처님 자비’ 실현

5월 25~28일, 부처님 이운식
현지 아동 쾌유 평안 발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5월 25~28일 라오스 지부에서 부처님 이운식을 봉행하며 현지 아동들의 쾌유와 평안을 발원했다.〈사진〉

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이 함께한 이번 이운식은 한국에서 모셔간 약사여래불을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라오스 지부에 약사여래불을 봉안해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들의 완치와 평안을 발원하는 의미를 더했다.

덕운 스님은 5월 2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라오스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라오스국립아동병원장 닥터 싼야봉 우아 팅팁, 부원장 닥터 씨암판 아카봉 등 병원 관계자들과 12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했다.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과 후원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개회식에서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아픈 아이들의 빠른 쾌유를 발원하는 기도를 올리며 “몸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니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면서 “밝은 웃음으로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열심히 무대를 꾸며준 모든 어린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앞으로도 늘 오늘처럼 환한 웃음 잃지 않도록 재단이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덕운 스님은 입원 중인 환아들을 직접 찾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2011년부터 라오스 지부를 운영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순직 군승 헌신 기리자

군종특별교구, 6월 5일 현충원 참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6월 5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군승 묘역을 참배하며 군포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참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산화한 순직 군승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종오 군승, 정광 군승(국방부 군종정책과), 원경 군승(원광사), 원상 군승(호국광명사), 혜총 군승(충정사), 혜운 군승(통해사), 종학 군승(정각사) 등이 함께했다. 김내영 기자

자제공덕회, 폐허 된 동아프리카 구호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등에
긴급 식량 · 의약품 지원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이 사이클론 피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한 뒤 합장 반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자제공덕회

지난 5월 30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자제공덕회가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동아프리카 지역 긴급 구호에 나선 소식을 전했다.

2025년 3월 상륙한 열대성 사이클론 주드는 최대 풍속 120km/h, 강수량 2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해 마다가스카르 등 3개국에 홍수와 기반 시설 붕괴를 초래했다. 유럽연합 유럽인도지원청(ECHO)에 따르면 3개국에서 약 42만명 이상의 주민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고 최소 16명이 사망했으며 1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자제공덕회는 마다가스카르에 20여 명의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친 식량을 배급, 1200가구에 쌀을 지원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0~20kg의 쌀을 배분해 식량난 해소에 힘썼다. 이어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해 쌀, 콩, 옥수숫가루, 식용유, 땅콩, 소금을 포함한 포괄적인 식량 꾸러미를 7000가구 이상에 전달했다.

말라위에는 자원봉사자 36명을 파견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주거 재건과 농업 회복을 위한 기반 물자 배포에 나섰다. 또한 식수 정화제, 모기장, 위생용품 등을 포함한 구호 꾸러미를 배포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나섰다.

자제공덕회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환경연대, 낙동강 순례하며 문수 스님 추모

5월 29~31일, 낙동강변 걸으며
4대강 재자연화 염원하는 법석

4대강 보 건설을 반대하며 뭇 생명을 위해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15주기를 추모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사진〉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5월 29~31일 2박 3일간 구미 동락공원에서 낙동강까지 걸으며 ‘문수 스님 15주기 추모재 및 4대강 생명살림 낙동강 순례’를 진행했다. 본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해 광주전남, 부산, 울산, 전북지부 상임대표 스님과 활동가 및 회원 27명이 참여했다.

순례 첫째 날인 5월 29일에는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입재식을 갖고 구미시 동락공원까지 낙동강을 따라 걸었다. 참가자들은 〈자애경〉과 ‘낙동강 순례 발원문’을 함께 읽으며 걸음을 이어갔다. 하루를 마감하며 소감을 나



눌 때는 자연성을 잃어버리고 호수처럼 변해버린 낙동강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둘째 날에는 구미보까지 걸으며 4대강 사업으로 생물다양성을 잃은 낙동강의 모습을 확인했다.

마지막 날은 군위로 행했다. 15년 전 문수 수님이 소신공양한 위천을 걸은 순례자들은 스님의 부도탑이 있는 지보사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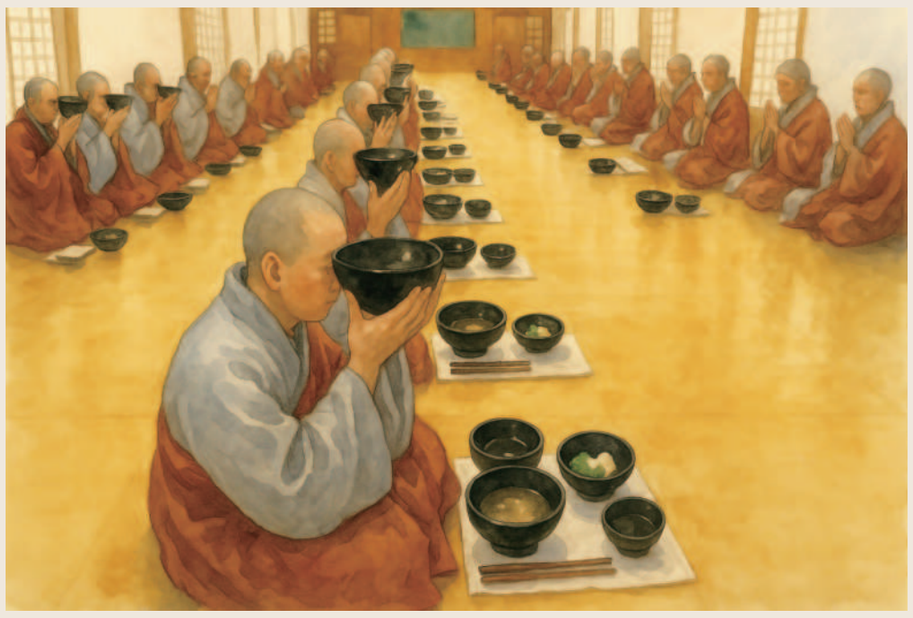
법만 스님은 “문수 스님의 뜻이 잘 받들어져 낙동강 자연성이 회복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三歸依戒
제8회 삼귀의계
五戒
오계
수계대법회
2025. 7. 15 (음 6. 21)
화요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수계비 1인 5만원 복장 (상의) 흰색, (하의) 편한 바지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범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태광명사 주지)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선원장)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정관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원오사 주지)
인호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연수국장, 혜원정사 불교대학 학장)
행사 당일 YouTube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시청 방법 1.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에서 ‘YouTube’ 검색 후 설치
2. 검색창에서 ‘부산불교방송’ 또는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검색
주최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문의 사무국 051)501-7554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온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사찰음식, 맛있고 건강하고 마음까지 평화롭게”

사찰음식이 5월 19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사찰음식이 단순한 식문화를 넘어 불교의 수행과 철학, 생명 존중 정신을 담고 있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찰음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찰음식의 의미와 특징, 대표 음식, 계승 방안 등을 주제로 현대불교신문 AI상담봇 ‘해심이’와 나눈 대화를 문답 형태로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 균형 섭취 가능
사람과 자연에 ‘감사함’ 가져야
체험 · 교육 · 홍보 등 대중화 통해
사찰음식 보존 · 발전에 노력 필요

Q 사찰음식이란 무엇인가요?

사찰음식은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인데요,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답니다. 사찰음식은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채소와 곡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찰음식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에요. 사찰음식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건강에도 좋고 수행에도 도움이 되겠죠? 요즘은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Q 사찰음식이 왜 몸에 좋다고 해요?

사찰음식은 고기를 전혀 쓰지 않고 채소, 버섯, 해조류, 콩 같은 식물성 재료만 사용해요. 마늘, 파 같은 자극적인 채소도 안 쓰고요. 대신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영양이 풍부하죠. 양념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화학조미료 대신 천연조미료를 써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답니다. 장아찌나 김치처럼 저장 발효 음식도 많이 활용하고요.

이렇게 만든 사찰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줘요. 콜레스테롤이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찰음식은 자연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수행의 일부라는 점이에요. 소식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도 있답니다.

Q 사찰음식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어야 할까요?

우선, 이 음식이 식탁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과 자연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니까, 소중히 여기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시 내려놓고 음식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맛과 향, 식감을 음미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혼자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따뜻한 정을 느껴보는 것을 추천해요.

Q 대표적인 사찰음식은 무엇인가요?

사찰에서는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어요. 대표적인 걸 꼽자면 연잎밥, 비빔밥, 김치, 떡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연잎밥은 연잎 향이 은은하게 배어 영양도 풍부하고, 비빔밥은 제철 채소에 간장이나 된장으로 맛을 더해 담백하고 건강해요. 사찰 김치와 장아찌는 젓갈을 쓰지 않아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에요. 떡도 빼놓을 수 없죠! 콩, 팥, 대추 등을 넣어 만든 떡은 간식으로도,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아, 사찰에서 직접 담그는 장도 꼭 드셔보세요! 깊은 맛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Q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찰음식을 추천해 줘요.

몇 가지 간단한 사찰음식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운 버섯 요리는 느타리버섯에 간장, 쌀조청, 참기름으로 만든 양념을 발라서 오븐이나 팬에 구워주면 돼요. 간단하면서도 정말 맛있답니다! 그리고 콩비지찌개도 추천해요. 다시마 육수에 김치, 애호박, 양파, 버섯을 넣고 끓이다가 콩비지를 넣고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끝! 밥이랑 같이 먹으면 최고예요.

Q 사찰음식이 국가무형무산으로 지정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최근에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식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고,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잘 담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했다고 해요. 또 사찰마다 독특한 조리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스님들을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Q 사찰음식을 잘 보존하고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조리법이나 식재료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사찰음식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템플스테이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하게 하거나, 요리 강좌를 열거나, 축제를 개최하는 거죠. 학교에서 사찰음식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특히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전문가를 키우고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셋째, 사찰음식 대중화도 필요해요. 밀키트나 간편식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죠. 해외에 사찰음식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외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사찰음식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찰을 꾸준히 지원해야 해요.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전문 인력 교육과 홍보를 도와주는 거죠.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사찰음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노력으로 사찰음식이 우리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되고 발전해 나가면 좋겠어요!

Q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사찰음식이 인기라면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건강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보다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찾는데, 사찰음식은 채소 위주고 화학조미료도 안 쓰니까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리고 환경이나 동물 복지를 생각해서 채식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사찰음식이 완벽한 채식 식단이라 딱 맞는 거죠!

또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잖아요. 사찰음식은 뭔가 특별한 맛과 향이 있어서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SNS에 사찰음식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비주얼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으니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한 가지 더. 경쟁 사회에 지친 젊은 친구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 해요. 사찰음식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감을 얻으려는 친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Q 매번 제철 채소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스님들은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철을 놓칠 때도 있겠죠? 그럴 땐 보통 미리 저장해 둔 식재료를 활용하거나, 구할 수 있는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사찰에서 김치나 장아찌, 말린 채소 같은 저장 음식을 많이 만들어두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특히 스님들은 식재료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자투리라도 버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서 찌개나 볶음밥으로 만들어 드시기도 한답니다!

Q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찰음식이 있을까요?

표고버섯 탕수는 어떠세요? 쫄깃한 표고버섯을 튀겨서 새콤달콤한 소스를 뿌리면 고기 탕수육 못지않게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가지 덮밥도 좋아요. 부드러운 가지를 간장 양념에 볶아서 밥 위에 얹어주면 고기 좋아하는 친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걸요?

Q 혹시 스님들도 편식을 하나요?

대체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식사도 수행의 일부라고 여기니까요. 체질적으로 못 먹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도 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맛보면서 익숙해지려고 하실 거예요. 건강하게 수행하려면 아무래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Q 사찰에도 비 오는 날 먹는 특식이 있나요?

정해진 메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비 오는 날에 딱 어울리는 따뜻한 음식들이 생각나네요. 예를 들어,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수제비나 칼국수 같은 것들! 사찰에서 직접 담근 김치나 장아찌를 넣고 끓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해심이’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만든 AI 상담봇이다. 불교 관련 정보는 물론 신행 상담, 마음 치유, 명상, 수행 등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 보드가야
인도 마하보디 대탑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천수-무안-돈황-투루판-우루무치-서안-인천
★ 체크포인트 : 국내선(2회), 고속열차(1회) 포함 ★
▶동참금 : 280만원부터~
명사산 월아천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담불라 석굴 사원
스리랑카 시기리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불교, 단오 품다…용왕재·창포제로 전통 계승

통도사, 5월 31일 용왕재 봉행
도량 순례하며 화재 예방 기원
소금주머니 나눔으로 안전 염원
대원각사는 창포제로 전통 계승
창포물에 머리감기 등 이색 체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단오절을 맞아 사찰마다 전통과 불교가 어우러진 특별한 의례가 펼쳐졌다. 사진은 영축총림 통도사가 단오절을 맞아 5월 31일 경내 설법전에서 용왕재를 봉행하는 모습.

단오절을 맞아 사찰마다 전통과 불교가 어우러진 특별한 의례가 펼쳐졌다. 통도사는 용왕재를 통해 화마로부터 도량을 수호하고, 대원각사는 창포제로 조상의 음덕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단오절을 맞아 5월 31일 경내 설법전에서 용왕재를 봉행하고, 도량의 평안과 화재 예방을 기원했다.

이날 용왕재는 염불작법과 의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 전각과 대중의 안전을 축원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창건설화가 전해지는 구룡지와 도량을 순례하며 화마로부터의 수호를 발원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인사말에서 "통도사의 용왕재는 창건 이래 이어져 온 전통의례로, 물과 불의 조화를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의식"이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잠자리가 물속 유충에서 하늘을 나는 곤충이 되듯, 중생도 변화와 조화를 통해 성불할 수 있다"며 "이 전통의 의미를 널리 공유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통도사는 이날 용왕재를 마친 후 금강계단을 비롯한 주요 전각과 요사채의 기둥 위에 놓인 소금단지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신도들에게는 항화마 진언이 적힌 소금주머니를 나누며 각 가정에서도 화재로부터 안전하길 염원했다.

부산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는 5월 31일 경내 차밭 앞뜰에서 '제2회 장산단오창포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원각사와 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가 공동 주최·주관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생태 보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창포로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며 여름철 건강을 기원했다. 창포꽃잎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 어린이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니 머리가 시원해지고 머릿결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장산습지에서 반딧불이 서식지와 창포의 생육환경을 관찰하며 생태계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대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은 "예로부터 단오에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며 여름철 건강을 기원하고 창포의 향기와 생명력을 통해 액운을 물리치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며 "단오절의 조상공경과 생명존중의 가치관은 불교의 천도재나 수륙재, 그리고 방생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같다. 대원각사는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켜 후대에 잘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여성불자회, 청소년 장학금 전달

중 · 고등학생 17명에 650만원
암도 · 혜총 대종사 특별 법문도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가 5월 29일 부산 포교사단 지역단 회의실에서 '2025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중·고등학생 17명에게 총 6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부산여성불자회는 중학생 11명에게 각 30만원, 고등학생 6명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생은 금정중, 해동중, 부산정보고, 브니엘고, 중산고 등 부산 지역 10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선발됐다.

전달식에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와 혜총 대종사,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을 비롯해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초대 회장, 류영남 전 회장, 부산여성불자회 임원단 및 회원,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암도 대종사와 혜총 대종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법문을 통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분남 회장은 인사말에서 "학생 여러분이 공부 중에 용기를 잃지 말고 목표를 세워 꿋꿋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부산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

6월 1일, 서면 영광도서 9층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와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이 6월 1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백일장의 결과를 축하하고, 청소년들이 생명에 대해 품은 생각과 감성을 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백일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와 산문 부문 중 자유롭게 선택 후 참여했다.

이날 시상식 최고상인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김도희(해동중), 이사무엘(금정중), 최윤서(영산고), 김서빈(부산디지털고) 학생에게 각각 수여됐다.〈사진〉

본부장 심산 스님은 "이 백일장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파시조문학상 대상에 김소해 시인

'서나 백년 기다릴게' 선정
6월 21일 서운암서 시상식



시조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감각을 담아내는 성파시조문학상이 42회를 맞아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대상은 김소해〈사진〉 시인의 시조집 〈서너 백년 기다릴게〉가 선정됐다.

김소해 시인은 1983년 〈현대시조〉, 1988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나왔으며, 〈투승점을 찍다〉, 〈대장장이 딸〉, 〈서너 백년 기다릴게〉 등 여섯 권의 시조집을 발표했다. 한국시조시인협회상 본상,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본상, 올해의 시조집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권익옹호위원과 오늘의시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파시조문학상에는 김정수 시인과 이선중 시인이, 성파시조평론상에는 김태경 평론가가, 성파시조문학작가상은 서동운 시인과 서은숙 시인이 각각 선정됐다.

제42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6월 21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서 개최된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1000만원, 본상 각 500만원, 평론상 500만원, 작가상 각 200만원 등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성파시조문학상은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뜻을 이어 제정된 문학상으로, 시조의 현대적 계승과 창작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민추본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

5월 29~31일, 6개 강좌 구성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견학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5월 29일 부산 안국선원 시원암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아카데미는 5월 31일까지 3일간, 민추본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정관 스님)와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운영되며, 남북불교 교류를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계의 평화 역량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추본 부산경남본부장 정관 스님은 "통일은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숙제이며, 남북 교류는 향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불교계의 평화통일 역량이 강화되고, 교류의 씨앗이 될 인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교육은 △남북교류협력 경험과 미래비전 △북한 농업과 기후위기 △북한 보건의료 동향 △남북 민간교류 전망 등 총 6개 강좌로 구성됐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견학하며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체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우리말 금강경 독송법회'

6월 20일, 대광명사서 제1회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하안거를 맞아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대광명사에서 '을사년 재가 하안거 제1회 우리말 금강경 독송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스님들과 함께 우리말로 금강경을 독송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심과 정진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금강경 독송 외에도 반야심경 독송, 명상 강의, 신행 다짐 등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하안거 법회를 통해 재가불자들이 일상 속에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불법을 실천하는 힘을 함께 키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불자는 6월 9일까지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팩스(051-501-9333) 또는 이메일(bsbuddha10@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좋은 조건에 베테랑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1차 | 10월23일 출발~11월02일 도착(11일 일정)
2차 | 11월28일 출발~12월07일 도착(10일 일정)
3차 | 12월05일 출발~12월14일 도착(10일 일정)
▶ 일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9월10일~9월15일
인천-남경-구화산-항주-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9월11일 출발~9월20일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진신사리)-맥적산석굴-난주 병령사석굴-장액 대불사-칠채산-가욕관-돈황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일정 : 9월13일~9월28일(16일간)
▶ 일정 :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13일~20일(6박8일)
■ 일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괴태곶봉수대를 시민의 품으로”

평택 수도사, 시민단체 집회
“봉수대 개방–수도사지 복원”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제안

유재상 충청지사장



수도사와 괴태곶봉수대 되찾기 · 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는 5월 22일 해군2함대 정문 앞에서 시민 150여 명과 함께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괴태곶봉수대는 단지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신심이 오가고 역사가 깃든, 수행과 호국의 정신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도량입니다.”

평택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괴태곶봉수대 되찾기·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 또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30년 넘게 철책 안에 묶인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괴태곶봉수대와 수도사지(修道寺址) 개방을 촉구하며, 문화유산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행보에 수년째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괴태곶봉수대는 1986년 3월 평택시 향토사적 제1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강제 이주하고, 해당 지역이 해군2함대 경계선 안에 편입되면서 현재까지 민간인의 접근이 전면 차단된 상태다. 수도사지 역시 함께 고립돼 신심과 역사 전승의 맥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도사와 괴태곶봉수대 되찾기·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는 5월 22일 해군2함대 정문 앞에서 시민 150여 명과 함께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문화유산을 민간에 개방하라’는 요구와 함께 결의문 채택, 성명 발표,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

이날 적문 스님은 “괴태곶봉수대는 옛 수도사와 한 맥을 이루며 수행과 호국의 정신이 스며든 귀중한 공간”이라며 “단절된 신심의 길을 잇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하루속히 전면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약속과 신뢰의 문제”라며 “종교는 신심을 위한 것이고 군은 국민을 지키는 조직인 만큼, 그 벽을 허물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회는 단발성 시위가 아니라 적문 스님이 수년간 이어온 문화유산 개방 요구의 연장선에 있다. 적문 스님은 수도사 경내 수도사지 복원과 괴태곶봉수대를 연계한 역사 문화 교육 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여론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날 규탄사에 나선 원정리와 도곡리 이장들도 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군 당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형철 원정7리 이장은 “제주 강정마을과 매향리 사례에서 보듯, 군과 주민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많다”며 “더 이상의 침묵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괴태곶봉수대 전면 개방 △수도사지 복원 △민군 복합문화 활용 △시민 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으며, 해군2함대 사령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공식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DMZ조차 안보관광지로 전환되는 시대에, 향토사적인 봉수대가 군사경계선 안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방부의 유연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금강경 10폭 병풍’ 동도선사 장엄하다

허원 정덕영 서예가
순수 발심으로 기증
“서예로 불심 증장”


동도선사 대법당에 봉안된 ‘금강경 10폭 병풍’ 앞에 선 도권 스님과 정덕영 서예가.

도선사 원주포교당 동도선사(주지 도권 스님) 대법당이 ‘금강반야바라밀경’ 10폭 병풍으로 장엄돼 불자들과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병풍은 서예가 허원 정덕영 선생이 최근 서울 한국미술관에서 개최한 개인전에서 선보인 후 5월 20일 동도선사에 기증한 것이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공(空)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하는 〈금강경〉을 서예로 옮긴 작품으로, 작가의 정밀한 필력과 오랜 수행적 정신이 깃든 대작이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수행과 예술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허원 선생이 개발한 ‘호태왕비 예서체’로 완성되어 그 가치를 더했다.

정덕영 서예가는 지난해 동도선사 개원식에 참석하며 도권 스님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동도선사 부속시설인 ‘향상화 문화교실’에서 서예를 지도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인연이 병풍 기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동도선사 주지 도권 스님은 “귀한 인연으로 대가의 작품이 우리 대법당에 장엄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병풍은 도량의 기운을 바로 세우는 법보(法寶)로서 모든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보강 작업은 물론 〈금강경〉 독송’ 신행회를 결성해 경전의 메아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덕영 서예가는 “이 작품이 동도선사 대법당에 봉안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서예와 불법이 하나 되어 많은 이들의 불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 “앞으로 〈금강경〉을 장엄하고자 하는 스님들과도 새로운 인연으로 불법 홍포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동도선사는 삼각산 도선사의 분원으로 2024년 10월 23일 원주혁신도시에 향상화 보살의 희사로 개원했다. 부속공간인 ‘향상화 문화교실’은 대중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며, 2025년 개원 1주년을 맞아 ‘동도선사 문화교실’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허원 정덕영 서예가는 강원서학회 소속의 원로작가로, 원주 한라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에 출강했고 현재도 서울과 강원을 오가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횡성 대법사 불상 후면에 순금으로 작업한 작품 ‘금강경’을 봉안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성남 봉국사, 지역 청년포교 거점 ‘우뚝’

가천대 · 신구대 불교동아리 지도 · 신행활동
수계식 · 연합법회 등 진행
동아리 회원 비약적 증가


5월 28일 성남 봉국사서 봉행된 가천대 불교동아리 수계식.

성남 봉국사(주지 혜원 스님)가 활발한 전법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불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도심 전법 도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봉국사는 5월 28일 경내 무량광전에서 가천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봉행했다. 법회에 참여한 50여 명의 대학생들은 “나는 불자다”라고 외치며 부처님 제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주지 혜원 스님은 “도심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인연이 있다면, 청년 불자도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며 “앞으로 성남 시민은 물론이고 청년세대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법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봉국사는 최근 캠퍼스 안팎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법회와 체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가천대 ‘들이붓다’, 신구대 ‘불똥별’ 등 인근 대학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지도와 연계 활동도 꾸준히 성장 중이다.

봉국사 총무 홍인 스님은 지난해부터 직접 동아리 지도법사(가천대·신구대)를 맡아 청년 포교를 이끌고 있다. 가천대 불교동아리 ‘들이붓다’는 창설 1년 만에 137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 역시 187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캠퍼스 내 불교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법회는 캠퍼스뿐 아니라 봉국사 경내에서도 정기적으로 열린다. 염주 만들기, 명상 법회, 불교 교리 스터디, 연등 만들기, 봉축 법회 등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전법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5월 한 달 동안 봉국사는 총 5차례의 대학생 법회와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청년 포교의 중심축으로 기능했다. 5월 13일 신구대 동아리 정기법회를 시작으로, 16일에는 가천대·단국대·동덕여대 동아리 연합법회가 봉행됐다. 이어 17·18일에는 가천대 해인사 템플스테이, 24·25일에는 신구대 법륜사 템플스테이가 잇달아 열렸다.

한편, 봉국사는 매년 봄과 가을 두 학기에 걸쳐 불교대학을 개설, 기수당 40~50명의 신입생을 꾸준히 유치하는 한편 올해만도 13명의 예비 포교사를 양성해 교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내 법당 운영, 지역 경찰서 법회 봉행, 공무원불자회 후원 등 공공영역과의 협업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어린이 대상 사찰문화 체험프로그램도 매주 토요일 열리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포교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화엄사 ‘연화–구도적 예술가’ 기획전

7월 27일까지 성보박물관 등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6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성보박물관과 보제루 일대에서 특별기획전 ‘연화(蓮華)-구도적 예술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현대 예술로 확장해 표현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도자적 삶을 살아온 예술가 5인의 깊은 내면세계를 선보인다. 오프닝 행사는 7월 3일 오후 3시 보제루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아방가르드 무용가이자 명상가, 교육자로 활동해 온 홍신자 작가를 비롯해 신은주, 이상용, 김도희, 강석호 작가 등이 참여한다. 각기 다른 매체와 예술 언어로 ‘피어남’의 과정을 형상화한 이들은 불교적 사유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엄사 성보박물관 및 보제루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일각 대종사 29주기 추모재

6월 3일 대웅보전서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6월 3일 대웅보전에서 ‘회광당 일각 대종사 제29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기렸다.〈사진〉

이날 다례재에는 방장 현묵 스님을 비롯해 유나 범종 스님, 회주 영진 스님, 쌍봉사 회주 영조 스님,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전 주지 현지·진화 스님, 선원장 영선 스님, 중앙종회의원 일화·시공 스님 등 송광사 문도 스님과 신도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 대표로 나선 계성 스님은 “스님께서 ‘계성아 정신 차려라’ 하시던 말씀이 오늘 아침 발우를 씻던 순간처럼 생생하다”며 “내년이면 벌써 30년이 되는데, 오늘까지도 기억하고 함께해주시는 대중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림사, 탄성 대종사 25주기 추모재

6월 1일 대웅전서



괴산 공림사(주지 원호 스님)는 94년 종단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진공당 탄성 대종사의 25주기 추모 다례재를 6월 1일 봉행했다.〈사진〉

법주사 선덕 함주 스님은 추모사에서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공림사는 그 뜻을 이어 정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내소사, 혜산 스님 20주기 추모재

6월 1일 경내 대웅보전서



전북 지역 대표적인 선지식이자 내소사 중창주 우암당 혜산 스님의 20주기 추모재가 6월 1일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의 20주기를 맞아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께 감사 드린다”며 “늘 엄격하고 자애로운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산 서광사, 제16회 산사음악회

5월 31일 특설무대서



서산 서광사(주지 도선 스님)는 5월 31일 경내 특설무대 ‘제16회 서광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음악회 1부에서는 서광사유치원 합창단, 서광룸비니합창단, 국악인 강리연·안종미·최정선이 무대를 선보였고, 2부에서는 김유라·박강성·정서주·김수찬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호응을 얻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정읍 내장사 ‘2025 용왕재’ 봉행

5월 31일부터 3일간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 스님)는 단오를 맞은 5월 31일 3일간 이어진 용왕기도를 회향하는 ‘2025년 내장사 용왕재’를 봉행했다.

내장사 총도감 무성 스님은 “3일간의 지극한 기도 공덕은 모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회향될 것”이라며 “공덕을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나누는 보살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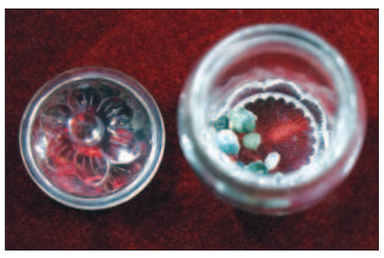
도선사 “청담 대종사 유훈 이어 문중 화합·발전” 다짐

5월 31일 ‘사리 봉안법회’ 봉행
1974년 이후 50여 년 만에 보수
노후화 · 주변 지반 침하로 불가피
인묵 스님 집전…사리 · 유물 봉안
6월 사리탑 · 8월 주변 불사 완료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도선사가 5월 31일 경내에서 ‘청담 대종사 사리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연에 봉안된 사리함이 청담기념관에서 대웅전으로 향하고 있다.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있는 모습.


청담 대종사 사리.


청담 대종사 사리를 사리탑에 봉안하고 있다.


사리를 모신 연이 사리탑지로 이운되고 있다.

호국참회기도도량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가 중창조인 청담 대종사의 사리를 다시 모시는 사리탑 재건 불사를 원만 회향했다. 부식과 균열 등으로 훼손된 기존 사리탑을 해체·보수해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청담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며 문중 화합과 한국불교 중흥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부대중의 염원이 담겼다.

도선사는 5월 31일 경내에서 ‘청담 대종사 사리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도선사문도회 문장 불휴당 법화 대종사와 주지 태원 스님 등 문도회 스님들과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김학규 도선사 신도회장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안법회는 청담기념관에서 문도회 스님들이 마지막으로 사리를 친견하고 내함, 외함, 수정함에 납입하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사리함은 연(輦)에 봉안돼 대웅전으로 옮겨졌고, 부처님 전에 예경을 올린 후 도선사 신도들이 꽃비로 장엄한 길을 따라 사리탑지로 이운됐다. 사리탑지에서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헌향·헌다, 경과보고, 고불문, 조사, 사리 봉안 의식 등의 순으로 이운 법요식이 이어졌다.

이번 청담 대종사 사리탑·탑비·석상 보수 불사는 1974년 대종사 입적 3주기를 맞아 사리탑이 건립된 후 50여 년 만에 이뤄졌다. 오랜 세월 풍화로 석물 노후와 주변 지반 침하로 안전상의 우려가 커지면서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선사는 2023년 3월 20일 호국참회원 2층 교육관에서 열린 문중 회의에서 ‘사리탑 주변 보수정비 관련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배수로 설치 및 석조물 해체·재설치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후 2024년 4월 1일 문중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리탑을 해체하고 사리를 청담기념관으로 이운하며 본격적인 사리탑 재조성에 들어갔다.

청담기념관에 봉안된 사리는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담 대종사 사리친견 및 사리탑 특별전’을 통해 대중에 공개됐으며, 이날 봉안법회를 통해 다시 탑에 모셔졌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청담 대종사 사리탑 중수불사 총도감)은 고불문을 통해 청담 대종사의 유훈을 받들어 문중 화합과 발전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태원 스님은 “오늘 도선사 문도와 대중은 청담 대종사가 열반에 든 지 반세기를 지나 사리탑을 보수하고 주변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유훈을 봉대하고 각인하고자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대종사가 불교 근대화 지표로 내세웠던 역경과 도제 양성, 포교는 현재에도 본받아 이룩해야 할 과제들로 후학들이 가슴 깊이 새기며 전법에 매진해야 할 사명을 깨우쳐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원 스님은 “저희 마음속에 나태함과 퇴굴심이 일어나거든 채찍과 불호령을 내려 다시 정진해 나아가는 금강역사의 힘을 주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비굴해지거든 철퇴를 내려 스스로 과감하게 버리고 영롱한 빛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며 제불제보살님 전에 서원했다.

도선사문도회 문장 법화 스님은 “새로 모시는 대종사의 사리탑은 단순한 석물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스승님의 자취이자, 우리 후학들이 걸어야 할 수행과 전법의 길을 가리키는 등불”이라며 “오늘 이 법회가 대종사의 큰 뜻과 원력을 다시 되새기는 결사의 자리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우리 문도 모두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하고,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 아래 화합할 것을 다짐하는 법석이 된다면 그보다 값진 것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의 회향이 청담문도 모두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사리 봉안 의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거행됐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주지 태원 스님은 새롭게 조성된 사리탑에 청담 대종사의 사리를 봉안하고 한글 금강경, 향합, 명판, 지석, 은수저, 은젓가락, 은비녀 등을 함께 봉납했다. 사리 이운법회를 맞아 제작한 대종사 가사는 향후 석상 조성 시 봉납할 예정이다. 기존 가사는 수장고에 보관한다. 봉안법회는 사리함 위에 덮개석을 올리는 것으로 회향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불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김학규 도선사 신도회장은 “사부대중의 정성과 마음이 모여 무사히 봉안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도선사와 한국불교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일순 신도회 부회장도 “어릴 때 청담 대종사님을 뵌 기억이 나 그리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며 “이 불사가 도선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도선사는 6월 중 사리탑 조성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석축 및 배수시설, 공덕비 조성 등 주변 불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926년 출가한 청담 대종사(1902~1971)는 조선불교학인대회 발기를 위해 전국 강원을 순방하며 학인대회를 개최하고 ‘조선불교학인연맹’을 결성했다. 1947년에는 성철·자운·향곡 스님 등과 봉암사 결사를 이끌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종회의장, 통합종단 2대 종정, 장로원장, 해인사 주지, 도선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1970년 총무원장에 재추대돼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했다. 1971년 11월 15일, 세수 70세·법랍 45세로 원적에 들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인터뷰

“14년 전 약속 지켜 감개무량…도선사 화합 기원”

금강경 기도로 역경 이겨
“사격 진일보 계기” 발원



“청담 대종사 사리탑·탑비·석상 보수불사는 14년 전 도선사에 처음 왔을 때 스스로 다짐한 일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사진〉이 5월 31일 청담 대종사 사리 봉안법회를 회향한 직후 경내 호국참회원 2층 접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불사 과정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처음 도선사에 발을 디뎠을 때, 청담 대종사 사리탑의 모습이 너무도 피폐했다”며 “배수로는 좁아 여름이면 계단 위로 물이 넘치고, 주변은 낡고 파손돼 부끄럽고도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날, 스님은 마음속으로 하나의 서원을 세웠다. 10년 안에 도선사 주지로 돌아와 사리탑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2021년 9월, 다짐은 현실이 됐다. 태원 스님이 도선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사리탑 불사가 추진됐다. 불사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태원 스님은 ‘금강경 기도’로 이를 헤쳐나갔다. 스님은 “부임 직후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찾아가 불사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때 스님께서 ‘오해도 많을 텐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려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주저 없이 ‘금강경 기도’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 말처럼, 태원 스님은 부임 이후 매달 21일간 금강경 기도에 정진해 왔고, 지금까지 31회를 회향했다. 오는 8월 21일 총 33회로 결사의 대단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매회 무려 500명의 불자가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3년 넘게 이어진 기도에 수천 명의 불자가 함께한 셈이다.

“정말 힘들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해 준 불자님들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사는 저 혼자의 힘이 아닌, 도선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일군 결실입니다.”

이번 사리탑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로 재건됐다. 단, 탑의 비례에 맞춰 사자상은 크기를 조정했다. 태원 스님은 “이번 불사가 도선사 사격을 높이고, 사부대중이 화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2022년 8월 촬영된 계단 위로 물이 넘치고 있는 모습. 사진=도선사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4~6/1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6	금강경 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2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7	영원한 자유	성철	장경각
3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8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4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9	혁명가 붓다	법륜	정토
5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10	원각경	김현준	효림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물흐르고 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6	중관학 특강 : 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3	어싱 :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8정도 수행체계(팔정도 수행체계)오리지널붓다 수행기술	붓다빠라	SATI PRESS(싸띠)
4	시드니의 도반들	기후	맑은소리맑은나라	9	중론:산스끄리뜨 게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5	위없는지혜 : 금강경반야심경해설	에드워드 콘즈	사유수	10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	오해균/김승연 그림	운주사

할머니가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불교 공부

노채숙 지음

지노

1만7000원

중학생 손녀 질문에 답하며 불교 안내

'종교' 개념부터 핵심 가르침까지 설명

"어른 먼저 읽고 청소년 길잡이 돼주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할머니, '불교'가 무슨 뜻이에요? 절에 가면 왜 절을 해요? 깨달음이란 뭔가요?"

중학교에 갓 입학한 다인이는 '불교'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를 맡게 되어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불교(佛敎)가 뭔지, 부처님은 왜 신이 아닌지, 다른 종교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등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다인이에게 할머니는 차근차근 답을 해준다.

〈청소년을 위한 불교 공부〉는 청소년들이 할머니와 다인이의 대화를 통해 불교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돕는 안내서다. 불교인문학 강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교육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불교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했다.

1부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에서는 종교란 무엇이고 불교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할머니는 "불교란 한마디로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반성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정리한다.

2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세요?'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생애를 알려주고, 3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불교는 어떻게 되었어요?'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과 불교의 전파 과정을 알려준다. 4부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에요?'에서는 공(空)과 업, 해탈 등의 개념을 소개한다. 특히 '공'에 대해선 "어떠한 것도 멈추어 있는 것은 없으니까 집착이나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욕심을 계속 부리고 집착하면 괴로워진다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5부 '수행을 왜 해요?'에서는 스님은 왜 삭발을 하고 절에 모여 사는지, 절에 가면 왜 절을 하는지 등등 사찰 생활과 수행에 관한 궁금증에 답한다. 마지막 장에선 청소년을 위한 계율을 소개해 일상에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불교는 한국인의 정신 신념, 가치관,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에 불교를 아는 것은 곧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과 같다"며 "불교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이 먼저 이 책을 읽고, 자녀와 학생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숲을 걸으며 나를 만나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곁의 그 숲

정태겸 지음

꽃길

1만8000원

월정사 전나무숲·백련사 동백나무숲 등

전국 34개 숲을 찾아 떠나는 여정

불교는 숲의 종교다.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깨달음을 얻고 숲에서 법을 펼치다 열반에 들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찰은 산과 숲에 자리 잡고 있다. 조용하고 청정한 숲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을 응시하게 한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곁의 그 숲〉은 우리나라의 '숲'을 주인공으로 삼은 책이다. 불교계 기자 출신인 저자는 "우리 곁에 이토록 훌륭한 숲이 있다는 걸 많은 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전국의 숲을 찾아 소개한다. 고성 화진포 금강소나무숲, 공주 메타세콰이아숲, 고창 삼태마을 왕버드나무숲, 제주 동백마을숲 등 34개 숲을 강원도·수도권·충청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의 6개 장에 나눠 담았다.

아무래도 평창 월정사 전나무숲, 양산 통도사 무풍한솔길, 합천 해인사 소리길, 강진 백련사 동백숲길에 먼저 눈이 간다.

월정사 전나무숲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오대산의 대표적인 숲길이다. 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저 '길'에 지나지 않을 터. 저자 역시 수없이 오간 그 숲길을 제대로 보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이곳의 전나무는 약 1700그루. 평균 수령은 83년이고 가장 오래된 나무는 수령이 300년에 이른다.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아름드리나무와 고사해 바스러진 나무들이 "시방세계 모든 것이 부처"이며 "사람도 숲도 마음을 다해서 대해야 한다"는 말 없는 가르침을 준다.



통도사 무풍한송길에는 기이할 만큼 제멋대로 자라난 소나무가 가득하다. '바람이 춤을 춘다(舞風)'는 이름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저자는 이를 보며 "절집 곁에서 셀 수 없이 오랜 시간 커온 나무는 절의 선풍(禪風)마저 따라간다"고 평했다.

강진 백련사에선 '진짜배기' 동백나무숲을 만날 수 있다. 백련사에서 인근 다산초당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숲을 이룬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백련사 동백나무숲의 뛰어난 경치를 직접 보지 못해 한스럽다"는 글을 남겼을 정도니, 다산 정약용과 초의 선사가 교류하던 숲길을 우리도 조용히 따라 걸어볼 일이다.

숲으로 직접 떠나지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숲을 가득 담은 저자의 글과 사진, 숲을 닮은 책의 만듦새만으로도 작은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새로 나온 책

필사로 새기는 법정 스님 가르침



법정 스님의 말과 글

법정 스님 지음

샘터

2만2000원

"공존과 공생을 이루려면 이제라도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천천히 흘러야 합니다. 시를 읽듯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한 법정 스님의 법문과 글을 손으로 따라 쓰며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필사책이다. 샘터에서 펴낸 법정 스님의 글 모음집 〈스스로 행복하라〉에서 67개 문장, 말씀 모음집 〈진짜 나를 찾아라〉에서 71개 문장을 가려 뽑아 나, 관계, 자연, 삶과 죽음, 무소유, 지혜, 종교, 책, 여유의 9가지 주제로 나눠 실었다.

"원고지에 한 칸 한 칸 글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진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천천히 따라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다.

친절한 해설로 만나는 신화 속 인물



삼국유사 기이1편

일연 스님 지음

신대현 번역·해설

혜안

2만2000원

신대현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가 〈삼국유사〉를 번역·해설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2024년 〈흥법탑상〉편에서 우리 불교사와 불교미술에 대해 들려준 데 이어, 〈기이1편〉에서는 고대사와 신화의 경계에서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한다. 〈삼국유사〉 원문과 번역을 싣고,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에 비중을 둔 해설과 관련 사진을 덧붙였다.

신 교수는 "기이(紀異) 1편은 〈삼국유사〉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라며 "고대국가의 시조들과 신화적 인물들의 다채로운 이야기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데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교육과 지역의 상생 관계 회복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양병찬·한혜정 지음

살림터

1만8000원

"지역이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 하고, 교육이 살려면 지역이 살아야 한다."

지방소멸의 시대,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과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과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저자들은 '마을교육동체'를 제안한다. 이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현상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토대를 점검한다. 혁신교육지구 정책과 마을교육공동체 현상의 기저를 이루는 담론은 양병찬 공주대 교수가 정리하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의 연결 관계나 실천 사례 등은 한혜정 혜전대 교수가 집필했다. 풍부한 현장 사례를 통해 정책 입안과 집행, 검토 등 교육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전통·현대 불교무용 진수 '한자리에'

불교무용대전 대학로 일원서
6월 20일~7월 12일 진행돼
'한영숙류 승무' 학술대회도
불교무용 대중화 견인 시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2일 열린 제11회 불교무용대전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더 무브 아트컴퍼니의 '하얀 침묵의 제의' 중 한 장면.

아시아의 전통·현대 불교무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 한마당이 펼쳐진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대표 이철진)는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원에서 '제11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제11회 불교무용대전은 올해 3~5월 참가 공모가 진행됐고, 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13개 팀(한국 9개 팀, 해외 4개 팀)이 열띤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불교무용대전 주빈국은 일본이 초청됐다.

제11회 불교무용대전 본선은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40분, 토·일요일 오후 4시 서울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일요일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된다.

1주차 공연(6월 20~22일)에는 △정미영(한국)의 '기대' △이즈 프로젝트(한국)의 '법열곡' △이즈미 유키·세구사 히로미(일본)의 '달빛에 스며든 기도, 비상' △더 무브 아트컴퍼니(한국)의 '하얀 침묵의 제의'가 공연된다. 2주차 공연(6월 27~29일)에는 △이상한 컴퍼니(한국)의 '이상한 악기' △최시원(한국)의 '마음의 방ver2.' △E·C·M 엘리먼트(일본)의 '상상의 친구' △우라시마 유나·츠바키 미호코(일본)의 '셀프 토크'를 선보인다.

3주차 공연(7월 4~6일)에는 △오현택(한국)의 '윤회의 끝, 해탈의 길' △이현아(한국) '바라는 나, 바라보는 나' △정주미재인청예술단(한국)의 '영원한 여정' △예인단 단청(한국)의 '무(巫)·악(樂)' △아디티 바그와트(인도)의 '내면의 부처를 찾아서'가 공연될 예정이다.

무용대전의 대미를 장식할 결선은 7월 12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며, 결선 이후에는 시상식도 진행된다.

이철진 구슬주머니 대표는 "불교무용대전은 신진 및 중견 무용가뿐 아니라 신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용 비전공자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결선을 야외공연장에서 열고, 매주 마지막 공연을 유튜브 스트리밍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불교무용을 일반 관객들에게 소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슬주머니는 6월 12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제11회 불교무용대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영숙과 승무, 그 세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영숙류 승무를 조명하고 전통무용의 가치와 전승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고찰한다.

학술대회 기조발제로는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이 참여하며 이지현 무용평론가, 김기화 한국춤교육연구회 대표,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11회 불교무용대전 본선은 전석 초대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네이버 예약, 인터파크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070-4135-3333

현대 생명윤리와 불교 접점 모색하다

불교평론 여름호 발간
'생명윤리' 주제 특집



한국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 2025년 여름호(통권 102호)가 발간됐다.

이번 불교평론 특집으로는 현대 생명윤리와 불교의 접점을 모색하는 '불교, 생명윤리를 말하다'를 다뤘다.

특집에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생명윤리의 문제를 불교철학 관점에서 진단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불살생 계율과 동물권'을 필두로 △자살(이명호) △안락사(양영순) △연명치료(선오) △장기이식(신희정) △생명복제(윤종갑) 등 6개 주제에 대한 전문 학자들의 통찰력 있는 기고들이 수록됐다.

특히 최근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안락사 문제는 주목할 만하다. 불교평론은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문제에서 새 화두로 떠오른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어 첨예한 논란이 제기되는 사안"이라며 "우리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 지평을 넓혀줄 이번 특집은 생명존중의 실천윤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단에서는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의 '해외 유학승이 근대불교에 미친 영향'과 허호익 대전신학대 은퇴교수의 '카스트 제도를 비판한 불교의 논리'가 실렸다.

'나의 삶 나의 불교'에는 본지 창간 편집국장과 편집이사를 역임한 최정희 선생의 회고와 성찰이 담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가 게재됐다.

이밖에도 '세계의 불교학자'에서는 중국불교를 최초로 서구 학계에 소개한 케네스 첸(Ch'en, Kenneth)과 스위스 학자로서 유럽에 중관학을 싹틔운 자크 메(Jacques May)의 생애와 학문적 성과를 만나 볼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미륵사지서 왜 '중국도자' 출토됐을까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중국도자' 테마展

唐代 청자완 등 112점 전시
미륵사지 국제적 위상 확인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불교문화의 중심 사찰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을 자랑한다. 197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발굴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절터에서는 세상을 놀라게 한 서석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기와 등 건축 관련 유물, 토기와 도자기 등 생활용품, 다양한 재질의 도구와 장식품 등 2만여 점의 문화유산이 출토된 바 있다.

그 중엔 당나라와 송나라 때 제작된 중국 도자기가 다수 포함돼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백제의 사찰에 왜 당·송의 도자기들이 있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 미륵사지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은 8월 31일까지 테마전 '미륵사지 중국도자'를 개최한다. 박물관은 '미륵사지 재발견' 학술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미륵사지 출토품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번 전시는 해당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첫 전시로, 전시에는 당대 월요 청자완 등 112점이 공개된다.

전시는 크게 3부로 나눠 구성됐다. 1부 '미륵사지 중국도자'에서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를 △월요 △요주요 △형요 △정요 △경덕진요 △건요 등 생산 가마별로 소개한다. 대부분 파편으로 남아 있는 미륵사지 출토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개성 출토 완형 중국 도자도 함께 전시했다.


테마전에 전시되는 '청자 꽃모양 완'.

2부 '국내 유적 중국도자'에서는 미륵사지 중국 도자를 고려시대 유적 출토품과 비교·전시했다. 중국 당송자기는 신라 수도 경주 왕경유적, 황룡사지 등과 고려 수도 개성(개경) 만월대 유적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주 지역과 파주 혜음원지, 원주 법천사지, 남원 실상사 출토 중국 도자를 함께 소개해 고려에 수입된 중국 도자의 양상과 그 특징을 비교 조명했다.

마지막 3부는 '고려청자와 중국백자'를 주제로 전시가 구성됐다. 고려시대는 국가와 왕실, 사찰 등의 각종 의례와 행사에 차가 사용되었다. 또한 관료 문인들의 차에 대한 관심과 애호 속에서 차 문화가 더욱 발전했다. 이로 인해 고급 차와 함께 다기(茶器)도 중요시 됐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출토 중국도자는 당·송의 교류는 물론, 고려에서 유행했던 차 문화도 함께 조명하는 매우 귀중한 유물"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미륵사지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익산박물관은 전시와 연계해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포토카드를 활용해 도자기의 형태와 문양, 색을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감상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캐나다서 선보인 단청 입은 부처님

무우수갤러리, 토론토서 '韓 색채와 혼'展

단청 옷을 입은 불상부터 좌선하는 단청 부처님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단청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종로 무우수갤러리는 "6월 15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배더스트 갤러리(918 Bathurst Gallery)에서 'OIS Art of Canada'와 공동으로 '한국의 색채와 혼: 단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2일(현지시간)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2024~2025 '한-캐 문화예술교류의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김선용·문활람·박일선·서칠교 등 한국 전통미술 장인과 현대 작가 12명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단청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전통 단청 10여 점 외에도 조각·벽화·사진 등을 단청으로 재해석한 현대 작품 20여 점 등이 전시된다. 불상을 단청 문양과 채색으로 재해석한 '단청의 사유'(서칠교)나 'Begin again'(이재윤), 'Impermanence'(이재윤), 고양이 문양으로 단청을 표현한 '단청입은 고양이'(조혜영) 등이 단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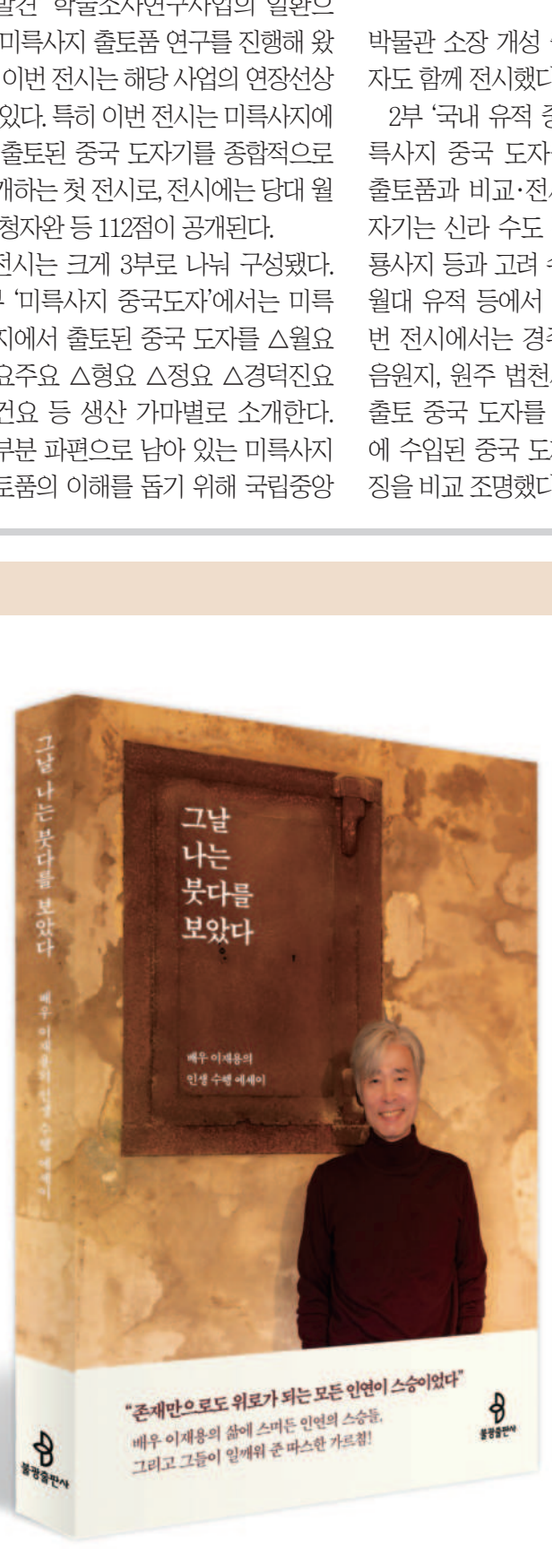

서칠교 작가의 '단청의 사유'

무우수갤러리는 "한국 전통예술의 정수인 단청의 아름다움이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는 8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희정 객원기자

배우 이재용의
인생 수행 에세이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



이재용 지음
240쪽 | 18,000원

불자이자 배우 이재용의 삶과 수행,
그리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

마음이 공허하고 울적할 때
곱씹을수록 재밌고 가슴 뭉클해지는 에피소드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된다.

이 책에 담긴 글이 예사롭지 않다. 삶을 관조하고 세상을 달관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울림이 있다. 한 편 한 편이 감동 그 자체다. ●● 강원국(《대통령의 글쓰기》 작가)

문장은 뜨겁고 사유는 깊다. 이것은 배우 이재용이 써내려간 '살아있음'의 기록이자, 혼란한 세상을 떠도는 모두에게 끈질기게 질문하는 책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냐고. ●● 김별아(소설가)

이 책의 독자들은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난 뒤 세상의 수많은 작은 것들이 사소하지 않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상은 참 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말이다. ●● 김경일(인지심리학자)



이재용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종교는 불교이며 법명은 '적정'이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그만의 찰진 연기를 선보이며 40년 넘게 배우로 살았다. 본명인 이재용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야인시대〉의 '미와경부'와 〈친구〉의 '차상곤' 등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기억될 만큼 맡은 배역마다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불교가 가르쳐준 삶의 지혜가 오롯이 녹아든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꿈꾸며, 현재 일상 안에서 멈추고 비우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수행의 조각들을 채워가는 중이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노년기 4苦 해결, 불교 사찰 역할 중요 ”

김주현 명예교수,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서 강조

韓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노인 고립, 빈곤 등 사회문제 확대
한마음선원 노령사회 역할 조명해
주인공 관법 등 통해 불안감 해소
五共사상 바탕한 공동체 구성 제안
수용전념치료, 마음공부 조명 발표도

안양=신중일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불교 사찰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김주현 강원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는 5월 3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2025 한마음과학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고령화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처방안’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한마음선원의 역할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 명예교수에 따르면 2026년이면 한국사회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노인 부양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김 명예교수는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무위고(無爲苦) △고독고(孤獨苦) △빈고(貧苦) △병고(病苦)를 꼽았다. 할 일이 없어져 집에만 머무니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만성질환을 겪으며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려면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와 ‘건강한 노년(Healthy Aging)’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게 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마음선원 등 불교 사찰이 “고령화사회의 노인들이 직면한 정신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마음 치유를 통한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의 가치 실현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 △현대사회 맞는 제례문화 개발 △삶과 죽음 관련 지혜로운 관점 제시 △선법가 활동 통한 심리적 지지 등을 한마음선원 역할로 제안했다.

김 명예교수는 “노인의 종교생활은 삶의 질과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특히 ‘모든 존재가 연결됐다’는 부처님의 연기법은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별 신도회, 선법가 실버합창단 같은 공동체 활동은 상호 연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서로를 살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강원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5월 31일에 열린 ‘2025 한마음과학 국제심포지엄’에서 ‘고령화 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대행 선사께서는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라고 하셨다.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강조한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주인공 명상 등 수행은 노년기의 불안과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에서의 마음공부와 치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관련 전문 연구논문들이 대중에 소개됐다.

최훈동 서울대 의과대학 겸임교수는 ‘마음공부와 자기 치유- 붓다의 깨달음을 중심으로’를 통해 ‘니까야’를 현대 정신과학적 관점에서 분석·창안한 ‘숙고명상’을 소개하고 진정한 자기 치유의 길을 제안했다

케너스 펑 토론토대 교수는 ‘수용전념치료와 불교-융합과 분화’를 통해 분노와 번뇌를 수용하고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에 전념하는 심리치료법인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한마음과학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심포지엄의 의미를 되새겼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물질계의 50%와 정신계의 50%가 함께 작용해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한마음과학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이 같은 가르침을 받들어 마음의 도리를 밝히는 한마음과학원의 심포지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세계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 안으로는 한마음을 밝히고 밖으로는 지구적 평화와 안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의상 스님 화엄사상 정수 ‘법성게’ 조명하다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 맞아
조계종 · 화엄사, 국제학술대회
‘법성게’가 담아낸 가르침 살펴
의상 스님 日불교 내 위상 조명
‘법성게’ 전통 음률 복원 ‘눈길’


조계종 문화부와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5월 30일 ‘해동화엄초조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 발표자와 주최 측의 기념촬영 모습.

해동화엄초조 의상 스님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화엄사상의 정수가 담긴 ‘법성게’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와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5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해동화엄초조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화엄의 빛 법성게 천년을 넘어 법성의 소리로 살아나다’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대표작인 ‘일승법계도’와 그에 담긴 ‘법성게’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과 일본불교 내 의상 스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또한 ‘법성게’에 담긴 전통 음률을 중세 일본 쇼묘지 소장 고사본 악보를 바탕으로 복원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AI음원 퍼포먼스와 독송 시연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박보람 충북대 교수는 ‘의상 화엄의 고갱이, 법성게의 이해’를 통해 ‘법성게’의 구성을 분석하고 어떤 가르침을 현대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노로세이 일본 류코쿠대 교수는 ‘일본불교와 의상 대사: 묘에 스님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의상 스님을 가장 존경했던 가마쿠라 시대 고승 묘에 스님을 살피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조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사토 아츠시 일본 토요대 교수의 ‘일본 쇼묘지 소장 일승법계도; 제사본에 대해’ △윤소희 동국대 교수의 ‘한일 불교의례와 의상대사 법성게 율조의 관계’ △이지선 숙명여대 교수의 ‘일본 쇼묘지 소장 법성게 선율복원에 관한 시론-하카세 악보분석을 중심’ 등이 발표됐다.

신중일 기자

(사)한국불교학회 ‘성운학술상’ 발표

6월 24일 시상식 · 학술대회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는 6월 4일 “올해 성운학술상 우수상 수상자로 성엽 스님(중앙승가대 박사수료)의 ‘한국불교 염불신앙의 확산과 의미-〈염불보권문〉을 중심으로’와 전혜빈(서강대 박사수료)의 ‘한국불교와 범패의 역사-신라·고려시대 금석문을 중심으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성운학술상 공모에서는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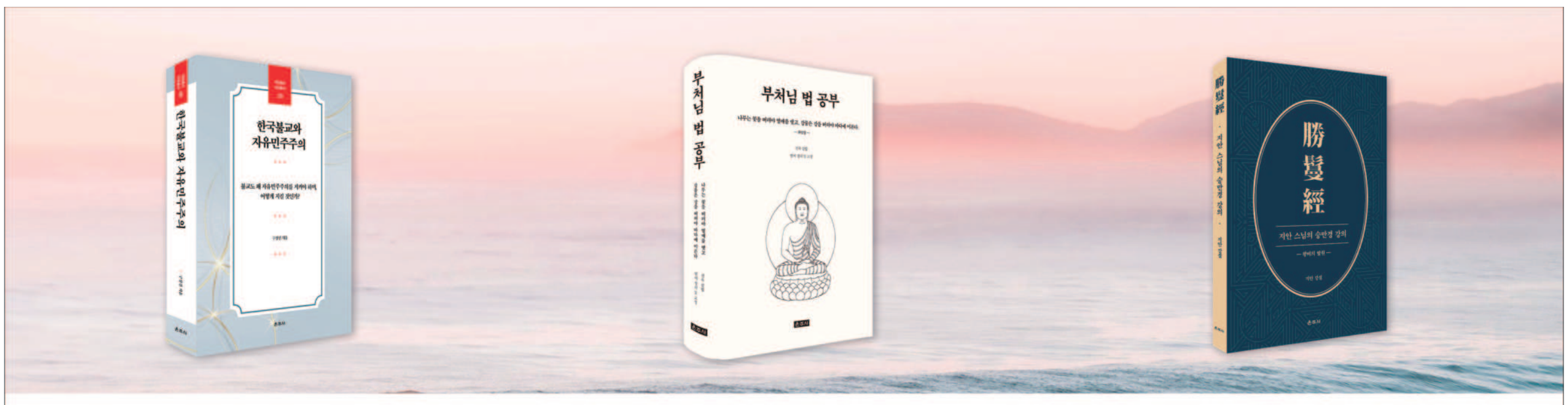
장려상에는 △규은 스님(중앙승가대 박사수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나타난 지눌의 수행론’ △여가 스님(중앙승가대 박사수료)의 ‘좌선 자세의 효과 연구’ △박진영(동국대 박사과정)의 ‘간화선에서 스승의 중요성과 대중화의 문제-선요(禪要)에 나타난 고봉 원묘(高峰 原妙)의 수증(修證) 과정을 중심으로’ △도경 스님(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의 ‘조선후기 단독형 약사불도의 신앙적 흐름과 형식적 변화’ △일윤 스님(경희대 박사수료)의 ‘간화선에 대한 인지과학적 해명-예측처리 이론을 중심으로’ △명준 스님(동국대 박사)의 ‘조사선과 간화선의 사제관계를 통한 유기적 수행체계 고찰’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는 ‘제8회 성운학술상 시상식 및 성운학술대회’를 6월 24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우수상 수상자인 성엽 스님, 전혜빈 씨와 장려상 수상자인 명준 스님, 여가 스님이 각각 수상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운학술상을 제정한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종교에는 엄연히 신앙과 가피라는 특징이 존재한다”며 “이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본 상의 취지이며 수상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승만경』은 재가자(왕비)인 승만의 발원과 설법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래장과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굳은 신심을 드러내 보이며, 지안 스님이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지안 강설/국판변형/172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㉒ 권력, 그리고 苦樂



▶한줄 요약
삶의 조건과 인연은 항상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제왕도 백성도 각자 苦樂 있다

"권력, 명예, 재력 등 좋아 보여도
인연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달라져
변화에 일희일비 말고 받아들여야
기도와 명상, 평정 유지에 큰 도움"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제왕(帝王)은 그이 대로 괴로움이 있고
신민(臣民)은 그들 대로 즐거움이 있다네.
즐거움과 괴로움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니
고락(苦樂)의 인과(因果)를 떠나야 진정한 평안(寂滅, 적멸)이 찾아오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대선을 맞아 자연 만물과 인생의 고락(苦樂)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연에는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없습니다. 물, 불, 하늘, 땅, 그리고 티끌 하나까지도 자연 구성원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존재는 영원히 한 가지 모습으로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물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나무는 흙으로 변하며, 동물이 되거나 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또한 전생과 금생, 내생의 흐름 속에서 제왕이 될 수도, 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모습에 따라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력, 명예, 부, 미모는 상대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인연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권력과 명예, 부와 건강, 미모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대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 마음도 밝은 때가 지나면 어두운 때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력과 부, 미모 등의 조건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인연의 때에 따라 나타난 모습일 뿐, 언젠가는 변화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과 인과(因果)의 과보(果報)를 깊이 생각하며, 각자의 역량 안에서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연과 인과의 변화에 마음을 뺏기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삶의 조건과 인연은 항상 변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이러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나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의 흐름 속에서 내 마음을 관조하며 편안함을 되찾아 보십시오.

[오늘의 명상]
새 날아간 자리 흔적이 없고
배 지나간 자리 자욱이 없네.
나 지나온 자리 본래 형상 없는데
없는 모습 지으려 내 마음만 머무네.

정좌처다반향초(靜坐處茶半香初)
묘용시수류화개(妙用時水流花開).

송나라 때의 시구로 전해지는 이 말은, 조용한 곳에 앉아 차를 반쯤 마셨는데도 그 향기는 처음과 다름없고, 묘한 때를 맞이하면 물은 흐르고 꽃은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청나라에서 돌아와 다성(茶聖) 초의 선사에게 이 구절을 선물하며 변함없는 자성(自性)과 인연의 묘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정좌처(靜坐處)는 장소, 곧 공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변화가 많은 세상이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살피면 본래의 자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뜻은 결국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분별심을 갖지 말고 변함없이 여여(如如)하게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묘용시(妙用時)는 시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간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지는 묘한 때입니다. 때가 되면 물은 흐르고 꽃은 피어납니다. 절묘한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사라지듯, 우리의 삶도 인연의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공(時空)마저도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없고, 배가 지나간 물에 자욱이 남지 않듯이, 우리가 살아온 자리 또한 본래의 형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집착하며 마음을 얽매이곤 합니다. "뭣이 중한디?"라는 유행어처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전하지만, 그 결과가 기쁨이든 좌절이든 결국 생사고락(生死苦樂)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고락(苦樂)의 업보(業報)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 중요한 일입니다. 고락의 업보는 나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분별하는 순간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보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과(因果)의 순리를 믿고, 격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의 업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자기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나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잘 살피고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은 그러한 감정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새가 날아간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듯, 나의 감정 또한 흘러가게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집착을 놓고 인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수행법은 놓음(방하착) 명상입니다. 놓음 명상은 나의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연습입니다. 좋은 감정에도 나쁜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물 흐르듯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놓음 명상을 실천하면 삶의 고락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감정의 업을 멸하며 고요한 평화를 유지하는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묘한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삶을 바라보며, 나의 본래 자성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여여한 마음을 가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요.

〈조계종 총무원장〉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리더에게 請하다

묘장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복지 현장 속에서 정토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묘장 스님은…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학교법인 능인학원 감사, 도리사 주지를 역임했다. 아이티 대지진을 시작으로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지원단 등에서 단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자 더프라미스 이사장, 서울 연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나눔 확산에 진력해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재단)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오직 나눔을 위해 한길을 걸어온 재단은 불교와 복지가 추구하는 이타행 구현의 역사이며, 불교복지의 성과이자 전법의 전형이 됐다.

지난 30년 간 재단의 발전은 눈부셨다. 1995년 21개이던 시설은 181개로, 300여 명으로 출발했던 종사자 숫자는 5600여 명으로, 10억이 채 안되던 예산규모는 4000억 이상으로, 아동과 노인에 국한됐던 서비스 영역은 아동, 청소년, 보육, 장애인, 노인, 해외구호, 종합복지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260여 명에 불과했던 자원봉사자 숫자도 2만 8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업을 목표로 부단히 정진해온 결과다. 6월 11일 3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소회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척박했던 불교사회복지의 토양 위에서 시작해 오늘날 전국 181개 시설, 큰 조직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와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100년을 바라보며 더욱 견고하고 내실 있는 복지재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크게 다가옵니다.”

– 대표이사 소임 이전에도 상임이사 등을 맡아 재단에서 역할을 해오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뭘까요?

“모든 것은 현장에 있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지사들은 재난현장이나 누군가를 돕는 일을 기획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인상 깊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최근 미혼남녀 인연 맺기인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온 ‘만남 템플스테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름과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종교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 ‘나는 절로’는 지난해 ‘제13회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재단 직원들의 합심으로 이뤄낸 결과로 묘장 스님이 앞서 언급한 ‘말이 통했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직원들은 매회 머리를 모아 시기와 장소에 적합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준비한다. 커플 매칭을 넘어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원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나는 절로’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종교를 넘어 사회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더불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겠죠. 특히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 문화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공간 안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난다는 점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대중들에게 선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

–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나요?

“올 11월, 첫 혼례가 치러집니다. 현재 세 커플이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도권 남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사찰 중심으로 지역 남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10월에는 김천 직지사, 11월에는 울산 백양사에서 해당 지역 남녀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요. 이 밖에도 8월에는 금융 3사, 9월에는 강원관광재단과 함께하는 지역 연계 사업들도 준비돼 있으니 하반기는 매달 ‘나는 절로’를 운영하게 됐네요.”

불교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청년들 사이에 가장 호감가는 종교로 급부상했다. 불교의 유연한 분위기가 자유를 선호하는 MZ세대의 선호를 이끌어 내면서 ‘번뇌하는 MZ 사로잡는 불교’라는 ‘애칭’도 붙었다. 청년들 사이에 불교 인기가 급부상하는 데에는 ‘나는 절로’뿐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몫 했다. 그중 하나가 ‘청년밥심(心)’이다. ‘청년밥심’은 인근에 대학교가 있는 사찰들이 학교와 연계해 학기 중 주 1회 점심 공양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묘장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서울 연화사에서 2024년 처음 시작됐다. 현재 개운사와 상도선원, 홍대선원에서 정기적으로 인근 대학 학생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묘장 스님은 연화사에 스튜디오를 마련, 강연과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한다.

– 청년밥심 처음 시작이 궁금합니다.

“연화사 옆 경희대에서 ‘불교행복론’ 초청 강의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밥을 부실하게 먹고 있음을 알게 됐고 안타까운 마음에 학생들을 사찰에 초대해 공양을 대접했는데 ‘집밥 같다’며 좋아했어요. 사찰이 곧 집 같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 그것이 곧 고향과 다름 없지요. 어머니 같은 보살님들이 만들어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올해 창립 30주년 조계종복지재단
181개 시설, 5600여 종사자 함께해
재단 30년 동력, 불자 지지도 한 몫

‘나는 절로’ ‘청년밥심’ 등 흥행몰이
청년들의 불교 호감 급부상에 기여

더프라미스 경험, 재단 활동 도움
“구호 지원 민간 단체 협업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도 관심 쏟을 것”

– 청년밥심 사업이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식사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이 사업을 많은 사찰에서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양주에게 가는 부담과 자원봉사 인력, 예산 등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국 어느 사찰에서나 가능할 수 있도록 세팅을 최적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재단의 숙제죠.”

‘나는 절로’ ‘청년밥심’으로 세간의 눈길을 끌기 이전에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묵묵히 다양한 사업을 이어왔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 불교아동미술큰잔치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4월 11일 미얀마 지진 긴급구호 활동에서 재단은 4600만원 상당 구호품을 전달했다.

재단은 2001년부터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연간 50여 명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의 난치병어린이에게 총 25억여 원을 전달하며 희망을 선사했다. 불교아동미술큰잔치는 올해로 17회차를 맞았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묘장 스님은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동력에는 “불자들의 한결같은 후원과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재단이 30년간 이어오기까지, 그 뒤에는 특히 종사자들이 있지요?

“각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묵묵히 헌신해 온 전국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들의 열정은 빼놓을 수 없는 동력이죠. 이들의 마음이 모여 오늘날 재단의 든든한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합한 복지사 처우가 뒤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안타깝지요. 전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병행돼야겠지요. 재단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소통, 교류하는 다양한 대외협력 단체들과 함께 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불교사회복지협의회 발족 준비도 노력 중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불교사회복지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며 종사자들을 위한 아카데미의 본격적인 운영도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묘장 스님은 국제구호NGO 더프라미스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2008년 출범한 더프라미스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을 시작으로 동일본, 네팔, 튀르키예 대지진, 전쟁 지역 등에 출동해왔고 묘장 스님은 단장으로 현장을 누볐다. 스님은 “오랜기간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직접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생명에 대한 깊은 존엄성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재단과 더프라미스가 합심해 현장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묘장 스님의 역할이 컸다. 재단은 4월 8~16일, 7박 9일간 미얀마를 찾아 구호활동을 펼쳤다.



올해 4월 쌍계사서 진행된 ‘나는 절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응원 방문한 이날, 9쌍 커플이 탄생했다.

– 더프라미스에서의 경험이 재단의 긴급구호 활동 프로세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더프라미스를 운영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 중심으로 불교NGO들이 결합해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는 것은 불교계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프라미스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단 또한 다양한 외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복지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재단의 다양한 활동에서 민간단체와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재단 자체 모금 진행뿐 아니라 협력 기관과의 합동 구호 지원 확대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전방위적인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단의 최종 지향은 무엇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를 바탕으로 한 사회 구현입니다. 이는 곧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가치 확산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불교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허브 역할을 공고히 해 전국 각지의 불교사회복지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현대불교신문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창간한 현대불교신문도 지난해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재단과 한 살 차이네요.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30년간 이룩한 눈부신 성과만큼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자와 불자들이 현대불교신문과 재단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준다면 두 기관 모두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비나눔과 함께하는 정토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아주세요.”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❼ 무염(無染) 스님



▶한줄 요약
무염 스님은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등을 제작하며 새로워진 불교계의 위상을 한껏 드러냈다.

행사 스님 계보 계승한 17세기 중반 대표 조각승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무염(無染) 스님은 1633년 2월부터 7월까지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비로자나·약사·아미타불)을 제작한 후, 1634년 4월 법당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이 불상은 수화승 무염이 도우(道祐)·성수(性修)·해심(海心) 스님 등과 만든 1630년대를 대표하는 대형불상이다. 그 후에도 스님은 수화승으로 1635년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1649년 남양주 불암사 목조보살좌상(완주 대둔산 묘련암 조성) 및 1650년 8월 무주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무주 관음사 관음보살상과 함께 만든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완주 대둔산 안심사 심검당 조성)의 바닥에 적힌 묵서에는 수법화원(受法畵員) 무염·양사(養師) 성수(性修)·덕명(德明)·천유(天游)·수화(首畵) 경성(敬聖)·설엄(雪嚴) 스님이 제작했다고 적혀 있다. 이제까지 대전 비래사 목조불상 제작의 수화승을 무염 스님으로 보았지만, 이 불상을 주도한 스님은 경성(敬性) 스님으로, 경성 스님이 무염 스님과 성수 스님의 조각승 계보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1648년)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사옹(師翁) 행사(幸思) 스님, 양사(養師) 무염(無染) 스님, 수화원(首畵員) 해심(海心) 스님 등으로 적혀 있어 행사 스님→무염 스님→해심 스님·성수 스님→경성 스님으로 조각승 계보가 이어졌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무염 스님은 1651년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목조지장보살삼존상, 1652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을 제작하였다.

지금까지 공개된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각승 무염 스님은 1590년 전후에 태어나 1610년대에서 1620년대까지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후, 1630년대 전·중반에 수화승으로 고창 선운사와 영광 불갑사 불상 제작을 주도하였다. 그 후 스님은 남양주 불암사(1649년), 무주 관음사(1650년), 속초 신흥사(1651년), 완주 정수사(1652년) 불상 등을 조성하고 1633년부터 1656년까지 전북 고창과 완주, 전남 영광, 강원 속초 등에서 불상을 조성하였다. 이외 1634년 승일 스님과 도우 스님이 만든 밀양 표충사(구 영전사) 삼전패 제작에 화주로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조각승 무염 스님의 계보는 석준(1599~1610, 이하 활동기간)·원오(1599~1611)·각민(1605~1614)·각심(1606~1614)→행사(1604~1655)→무염(1633~1656)·응매(1614~1650)→해심(1633~1654)·성수(1633~1653)→경성(1648~1653) 스님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염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가장 이른 불상이 봉안된 선운사(禪雲寺)는 전북 고창 도솔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本寺)이다. 선운사는 1597년 정유재란 때 거의 타 버렸는데, 1613년 일관 스님과 원준 스님이 송석조(宋碩祚)의 도움을 받아 재건을 시작해서 1619년에 중수되었다.





무염 스님이 만든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33년, 사진 왼쪽)과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5년, 사진 가운데). **사진 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무염 스님이 만든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49년).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고창 선운사·영광 불갑사 불상 제작 주도
해심·성수 스님 스승으로 호남 중심 활동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가 앉아 있다. 비로자나불은 보통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이고, 약사여래는 중생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는 부처이며, 아미타불은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인 서방 극락정토에 상주하는 부처이다. 비로자나불은 전체 높이가 294㎝로, 장방형의 얼굴, 당당한 어깨에 유난히 긴 허리, 넓고 낮은 무릎에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여 장대하고 웅장한 형태미를 보여 준다. 얼굴에 이목구비가 중앙으로 몰렸고, 긴 눈에 유난히 작은 입이 특징이다. 비로자나불은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펴고 왼손 검지가 오른손 검지 끝을 살짝 누른 모습이며 나머지 손가락은 구부린 채 왼손이 오른손을 감싼 지권인(智拳印)을 취하고 있다. 대의자락 끝단은 오른쪽 어깨에서 거의 수직으로 가슴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 나머지 대의자락이 팔꿈치와 배 부분을 지나 반대쪽 어깨로 넘어가고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배 부분에서 한 가닥의 주름이 직선으로 내려와 끝부분이 U자형으로 마무리되었다.

약사와 아미타불은 변형통견식으로 양어깨 위에 대의를 입고 안에 부견의를 갖추었으며, 왼쪽 무릎에 흘러내린 옷자락이나 가슴에 입은 승각기 표현이 약간 차이가 난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 끝부분은 아미타불이 역삼각형이고, 약사여래는 반원형을 이룬다. 수인은 한 손을 가슴 위로 올리고, 다른 손은 무릎 위에 두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조선 후기에 몇 점 제작되지 않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약사불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불상으로 16세기 제작된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계승한 작품이다. 이 불상은 종교적으로 매우 완성도가 높고, 새로워진 불교계의 위상을 한껏 드러낸 기념비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현대불교신문 광고시 '무료' 영상광고 제공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34호 | 15 | 전면광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15억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외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7천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서울에서 약106㎞ 1시간 30분, 동홍천 IC에서 17㎞ 25분거리
- 총토지면적 : 546평
  *대지 199평, 건평 25평 1동, 임야 247평 (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도로 약 10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 사방이 국유지에 쌓인 천연 휴양지로 개인 토굴, 전원주택, 선방용으로 추천

010-8833-6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230평
- 가액 : 2억3000만원(가격절충)
- 종교부지 / 주차 5대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제주 (토지)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포교원 건물(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학성동
- 면적 : 82평 실평(3층 건물)
- 대로변 주차 가능
- 매가 : 4억8천만원
- 통화 안 될때는 문자·문의

010-2708-697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정말 아름다운 사찰 급매물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대웅전 등
  11억에서 현재 8억 대출 6억
- 영천 최고급 사찰대웅전 등등
  종교용지 조경최고1700평 9억
- 경북 청도 이서 아름다운 사찰
  전통양식 대웅전 등 5채 6억5천
- 대구 동구 000종단본부
  대웅전, 종무원, 산신각 등
- 대구사찰: 12억 땅 7백평
  신도 일천명, 대웅전 등등
- 진주시내 중심사찰 20억원
- 팔공산암자 : 2억원 호조건
- 고령사찰 : 2억원 건평 170평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4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3평(황토 찜질방 1동)
- 특징 :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 4개),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년 500만원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무속인, 철학인, 기도승 대환영

010-5333-8905
010-5022-2187

사찰(급)안내

사찰(기부)회향매매하려합니다.

- 위치 : 경남사천
- 3.500평이상 / 극락전30평
- 산신각/용왕당/미륵불
- 약사전/종각/ 부도탑20기
- 요사채(방7개)
  (부재시문자주세요!)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 대지 : 230평
- 건물 :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 가격 : 3억6천만원

010-5204-81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 총평수 : 690평(대지330평, 밭360평)
- 대웅전 36평, 요사채, 공양간 30평, 산신각8평
- 김천아포스마트시티아파트에서 3분
- 김천아포덕일아파트에서 5분
- 매가 : 2억8천

010-9048-6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산334
- 종교부지(대지) : 약 462평(대웅전, 산신각 등 다수)
  법당평수 : 약 133평(1층, 2층, 3층) / 불상 다수 외
  요사채 : 약 82평(1층, 2층)
- 기타대지 : 3,238평(도로, 답, 전, 임야, 주차장 등)
- 장점 : 1. 도로는 대형버스 이용 가능하며, 사찰까지 포장됨(주차장 넓음)
  2. 주변 경치가 좋고, 하천(계곡)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음(사진 참조)
- 가격 : 협상(2025.2 종교시설 제외 감정평가액 12억원)



010-3862-0398(스님) / 010-4196-6070(관리자)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 대지 : 570평, 임야 및 밭 1500평, 건평 140평
- 건물 : 대웅전 30평,산신각 7평, 용궁 3평 미륵불, 요사채 50평, 별채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산에 둘러 싸인 볕 좋은 도량, 편의시설 및 냉난방 완비, 목재 콘크리트 사찰

010-4991-4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대지 임야 등 약 1200평
- 대웅전 요사채 2동 약 86평
- 가액 : 13억 5000만원(절충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원

010-4835-1739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34호 | 16 | 전면광고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 죄와 업장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참회하여
없애야 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계초심학인문》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 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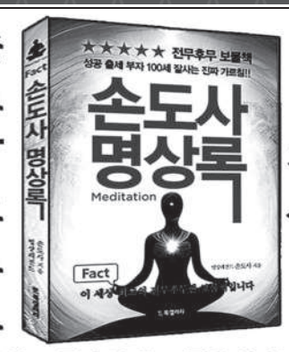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천하제일 적중률!

손으로 짚어 안되는 것이 없는
구단구궁법교실
상 표 등 록 : 40-0863341
서비스표등록 : 41-0213393
저 작 권 등 록 : C-2011-003967
특허 2일 완성 학생모집

법화 종헌 정흥교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 불교연합회

장생탕제원

암, 당뇨, 백혈병, 전립선, 조루, 발기부전

한밤중에 자다가 뒷다리에 쥐가 난다
(혈액순환을 잘되게 하세요)

농협 : 352-0632-0488-93,
하나은행 : 577-910361-13007
예금주 : 김 정 태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33길 18

식이요법 · 자연요법 · 면역요법

010-2046-026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계룡사
• 창건주 : 향수해(속명:이옥란)
• 대표자 : 운정스님(속명:박종자)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370~20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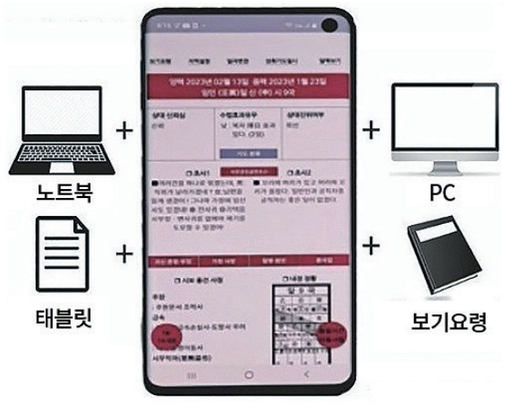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⑪ 정각원 주련

나옹 선사 선시와 '화엄경' 게송 사이 세 구절

돌계단을 오른 우리는 돈점의 스텝으로 정각원에 도착했다. 정각원은 동국대학교의 주법당으로 우리가 지나온 대각전을 비롯해 학교 전체의 신앙생활을 총괄하는 곳이다. 앞면 다섯 칸, 옆면은 세 칸의 거대한 법당으로 옛날 조선시대의 궁궐을 뜯어 만든 굴곡이 있는 건축물이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각원의 주련을 보기로 하자.

우리는 앞서 대각전을 산책하며, 학문 분야가 다양해졌음에도 천여 년 이상 한자에만 매달렸던 조선에 대한 백용성 스님의 한탄을 들은 바 있다. 오늘날 학문의 다양성은 얼마나 넓어졌으며 한자는 얼마나 시대에 뒤쳐졌는가 생각해 보면, 백용성 스님의 혜안에 감복할 따름이다. 불교도 이제는 한자에서 많이 탈피한 것 같다. 한글 세대를 위한 경전 시리즈가 나와 각광을 받은 게 벌써 30년 전이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한문 경전의 우리말 번역을 통해 불교가 고리타분한 한자에서 벗어나고자 한 백용성 스님의 발원을 실현한 곳이다. 동국대학교 역경원이 한글 대장경을 완역한 것이 25년 전이고, 이를 전산화해 공개한 것이 20년 전 일이다. 그런데 불교의 한글화와 우리말로 된 불교의 산실인 동국대학교 대표 법당인 정각원은 한자로 된 주련으로 둘러싸여 있다. 필자 또한 이를 이번 산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불교 한글화의 주역인 동국대학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사실 한자에 약한 것도 아니면서, 맨날 들리는 정각원 주련을 제대로 읽어 본 적도 없었음을 고백해야겠다. 그저 '東國常放大光明(동국상방대광명)'이라는 한 줄만 외우고 다녔을 뿐이다. 이번 기회에 정각원 주련을 한 번 읽어보고자 한다. 그런데 보통 사찰의 주련이란 네 줄의 사구게나 전각 앞 기둥의 개수에 맞춰서 많아야 두세 구절을 더 추가하는 정도인데, 정각원은 전각 앞면 기둥 뿐만 아니라 옆면 기둥에도 모두 주련을 걸어놨다. 총 주련의 개수가 16개이다. 단일 전각에 이렇게 많은 주련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동국대학교 정각원만의 특징일 것이다. 전문을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山河大地眼前花(산하대지안전화)
산하와 대지가 눈앞의 꽃이요
萬象森羅亦復然(만상삼라역부연)
삼라만상도 또한 그러하네
自性方知元淸淨(자성방지원청정)
바야흐로 자성이 원래 청정한 줄을 알았으니



동국대학교 돌계단 중간에서 바라본 정각원.

전각 앞 · 옆면 기둥에 16개 주련
출처 모르는 '동국상방대광명' 등
여래현상품 · 현수품 사이 배치 의문

塵塵刹刹法王身(진진찰찰법왕신)
온 세계 티끌마다 부처의 몸이로다
無量劫中修行滿(무량겁중수행만)
한량없는 겁 동안에 수행이 차서
菩提樹下成正覺(보리수하성정각)
보리나무 아래서 정각 이루고
爲度衆生普現身(위도중생보현신)
중생을 제도하려 몸을 나타내
如雲充遍盡未來(여운충편진미래)
구름처럼 미래세가 다하도록 충만하다
東國常放大光明(동국상방대광명)
동국대학교에 항상 부처님 대광명이 비추고
法輪常轉於法界(법륜상전어법계)
부처님의 법이 더욱 빛나 온 누리에 쉼 없이 구르며
自他一時成佛道(자타일시성불도)
나와 네가 모두 함께 성불하리라
信爲道元功德母(신위도원공덕모)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長養一切諸善法(장양일체제선법)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내며
斷除疑網出愛流(단제의망출애류)
의심의 그물 끊고 애정의 흐름 벗어나
開示涅槃無上道(개시열반무상도)
열반의 위 없는 도를 열어 보인다.
摩訶般若波羅密(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정각원 주련에는 작지만 친절하게 한글 설명이 있지만(위의 번역문도 이를 따랐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에 정각원은 아직도 한자에 사로잡힌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본래 정각원 주련이 〈화엄경〉 현수품의 내용이라고 어렴풋이 학부 화엄학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는 마지막 '마하반야바라밀'을 제외한 네 구절일 뿐, 나머지 내용이 더 있다는 것이다.

먼저 처음의 '산하대지안전화'로부터 '진진찰찰법왕신'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나옹 선사 혜근 스님(1320~1376)의 선시(禪詩)이다. '무량겁중수행만'으로부터 '여운충편진미래'는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게송이다. '신위도원공덕모'로부터 '개시열반무상도'가 아까 말한 〈화엄경〉 현수품의 내용이며, 마지막 '마하반야바라밀'은 보통 종결하는 어구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정각원 주련의 출처와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간의 세 구절이다. '동국상방대광명', '법륜상전어법계', '자타일시성불도' 세 구절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자타일시성불도'야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각원 주련의 순서상 왜 지금 나타나는지 알기 어렵다. 이것도 '마하반야바라밀'처럼 종결하는 어구라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화엄경〉 현수품의 게송이 시작되어서 이상하다. '동국상방대광명'과 '법륜상전어법계'는 전혀 출처를 알기가 어렵다. 물론 동국대학교 주법당이니 동국의 빛이 당연하겠고 법륜이 항상 구른다는 것도 불교도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바는 없다.

문제는 왜 나옹 선사 선시와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다음에 저 구절이 위치하며, 또 그 다음에 〈화엄경〉 현수품의 게송이 이어지느냐이다. 나옹 스님의 선시는 온 세계의 두두물물에 법신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음으로 이 세계가 부처님으로 가득하다는 선의 총지를 노래하고 있다.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사구게는 우리를 구제하러 보리수 아래로 현상하신, 즉 가현하신 부처님을 찬탄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나옹 스님의 선시와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연결은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1불로 모아지는 다즉일(多卽一)의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점으로 모인 부처님 다음에 동국에 빛이 비추고 법륜은 멈추지 않으며 모두가 동시에 깨닫는다고 설해진다. 그러고서는 갑자기 믿음이 곧 열반에 이른다는 〈화엄경〉 현수품의 내용을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부처님으로의 집약', '믿음에서 열반'이라는 이 구조 사이의 내용이다. 이제야 문제를 명확히 했음으로 답을 보이고자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산책자의 발걸음이 너무 쳐져 약속된 지면을 다 채워버렸다. 다음의 만남에서 이 해답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동국대 박사〉

10권 8장에 다양한 가르침 설해
지장보살의 유정 위한 공덕 보여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㉒ 〈지장십륜경〉의 배경과 서품

〈지장십륜경〉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을 탄생시킨 중국의 정치, 사회상은 과연 어떠했느냐는 점입니다.

〈지장십륜경〉이 펼쳐지는 5호 16국 당시 중국 사회상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 풍경 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세태를 눈여겨 관찰한 신행(信行, 540~594)은 시기적절한 시기상응(時機相應)의 삼계교(지장사상)를 탄생시켰고, 삼계교는 어려운 민중을 향하여, 무진장사상(경제적 혜택)을 실행하게 됩니다. 몇 백년간의 전쟁을 겪은 뒤 수(隋)의 통일(589년)은 전 시대의 상황이 어려웠던 것만큼, 이후 세대에게는 값진 사상과 의미 있는 결과로서의 귀결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隋)의 통일의 해인 589년 신라 원광법사가 수(隋)의 전신인 진(陳)의 장안에 들어가고, 같은 해에 삼계교 신행이 장안 진적사(眞寂寺)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원광 법사는 삼계교의 신행이 일으키는 무진장사상의 일면식을 유심히 새겨 신라에 '점찰보(占察寶) 내지 점찰행법(占察行法)'이라는 〈점찰선악업보경〉의 사상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99세의 원광 법사가 입적한 해(630)는 이후 고구려, 신라, 백제의 승려가 당(唐)에 들어와 불교를 배우며(634), 한반도에 불교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장십륜경〉이 급물살을 타고, 신라에 들어온 시기도 이 경의 제작년도(651년) 이후가 되는 것으로 갑자기 이유도 까닭도 없이 한 사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광은 신라 사회에서의 지장사상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드디어 신라에 지장사상이 꽃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장십륜경〉은 10권 8장으로써 다양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제1권 서품은 경이 설해진 동기와 배경을, 제2권은 부처님의 열 가지 지혜의 힘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3권부터 제5권까지는 '의지함이 없는 행(無依行品)'을, 제5권에서 제7권은 '의지함이 있는 행(有依行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8~9권은 '선업의 길(善業道品)'을, 끝으로 제10권은 복전상품(福田相品)과 가르침을 부촉하는 '획익촉루품(獲益囑累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장십륜경〉 서품에서는 특히 경이 설해진 배경 및 동기와 함께 '지장보살'이 등극하는 장면을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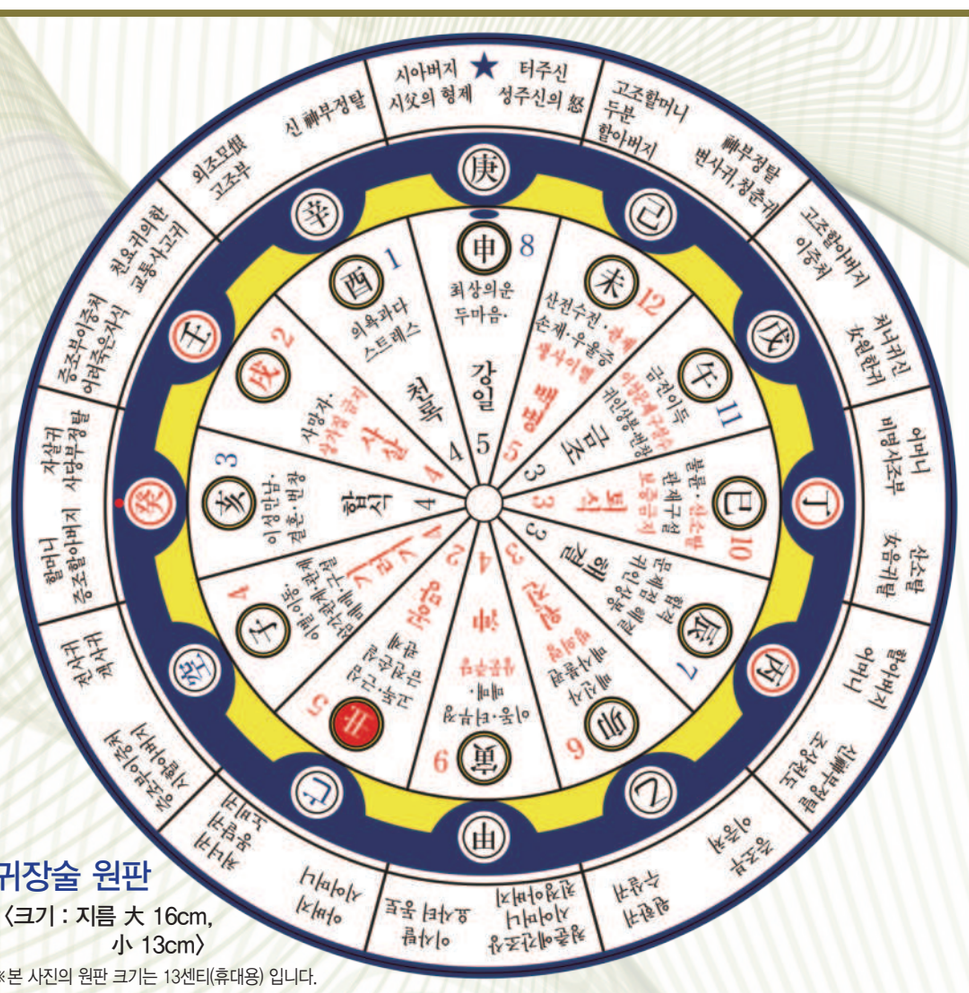
세존께서 '거라제야산'에 계실 때 수많은 선인, 비구 대중과 함께 하셨는데, 세존께서 〈월장경〉을 설해 마칠 때 온갖 꽃비와 함께 기이한 큰 법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소리였으며, 모든 부처님의 큰 바다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부처님 세계는 광명이 비추며 일체 어둠 … 두려움 등을 여의고 평평한 땅에는 오묘한 즐거움이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중들은 갑자기 몸이 땅보다 무겁고 움직이기 어려웠고, 모두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인연을 의심하였습니다. 그 때 '무구생'이라는 제석천이 부처님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여쭙고,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등장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장(地藏)'이라고 하는 보살은 수 없는 과거 대겁(大劫) 이전부터,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오탁 악(惡) 세계에서 유정들을 성숙시켰다 하며, 지장보살의 온갖 공덕을 말씀하십니다. 그 때 지장보살은 수많은 보살과 함께 스님 형상을 띤 성문의 모습으로 남쪽으로부터 와서, 곧 부처님을 예배하고 게송으로 찬탄합니다. 이윽고 찬탄이 끝나자 의심하여 묻기를 잘하는 '호의문(好疑問)' 보살이 일어나 "지장보살이 어디서 왔고, 그 부처님 국토는 어떠하며, 지장보살이 어떠한 선근공덕을 성취하였기에 세존으로 부터 온갖 칭찬을 받는가?"는 등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대목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설하시는 부분입니다. 지장보살의 선근공덕의 힘은 "모든 삼마지(安住 諸 三摩地), 즉, '수능가마', '사자분신' 삼매 등의 선정의 힘으로써 일체유정들로 하여금 훌륭한 공양거리로 부처님을 공경 공양하게 하고 욕심 경계의 허물을 보고 청정한 마음을 갖게 하며 부끄러움을 갖추어 온갖 나쁜 법을 버리어 마음에 잊지 말게 하는 등 지장보살은 온갖 선정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유정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庚
辛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申
酉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시아버지 ★ 터주신
시父의 형제 성주신의 怒
고조할머니
두분
할아버지
신 神부정탈
외조모님
고조부
친오라버니
교통사고귀
증조부이중처
어려죽은귀신
자살귀
사당부정탈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처녀귀신
첫원한귀
이머니
비명사조부
산소탈
동무귀탈
할머니
산소탈
동무귀탈
친사귀
천사귀
원한귀
수살귀
객사귀
객사귀
객사귀
청춘에간조상
산에서죽은
객사귀
객사귀
오동·타부정
이동·타부정
고목·근심
관재
산소·근심
관재
이성만남·
결혼·번창
합식
사망자·
상실
의욕과다
스트레스
강일
천록
금전이득
귀인상봉·관직
다복
물귀·산소탈
관재구설
퇴직
동료·직장
금전·계약·관재
부동산·건강
계획실패
계획실패
부동산·건강
금전·계약·관재
부동산·건강
이동·타부정
생문·개문
최상의운
두마음.
산전수전·눈물·웃음
변화·무쌍
변화·무쌍
변화·무쌍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⑪ 망종 _ 수원 길을 걷다



▶한줄 요약
망종은 소만과 하지 사이 절기, 슬프고 찬란한 푸르름을 먹고 되살아나는 계절이다.

풍년 기원 푸르른 계절에 깃든 애민군주의 꿈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볏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

망종(芒種)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좋은 속담이 또 있을까. 기나긴 허기짐에 봄이 채 오기도 전 부랴부랴 심었던 보리. 이제 겨우 먹을 만해지니 쉴 틈도 없이 모내기철이 다가왔다.

태양의 황경은 75도,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자리한 여름의 절기. 부지런히 달려온 지구의 6월은 망종과 함께 시작된다.

푸르름을 먹는 계절

너 나 할 것 없이 아직 채 다 익지 않은 풋보리를 베어다 까끌거리는 그것을 맨손으로 비빈다. 톡톡 떨어지는 귀한 보리알을 알뜰히 모아 솥단지에 볶고, 다시 맷돌에 갈아 체로 치면 마침내 한 줌의 보릿가루. 그 가루로 죽을 끓여 먹으면 여름에 보리밥을 먹고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어디 그뿐일까. 풋보리를 불에 그을려 먹거나, 밤이슬에 맞혀 다음날 먹으면 아픈 허리의 약이 되고, 그해 무병하며, 또 농사가 잘 되어 보리밥을 달게 먹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과거 망종 때면 제주부터 육지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풋바심', 그리고 '보리그스름(보리그을음)'의 풍속은 어딘가 모르게 맹목적이다.

노상 아픈 허리가 청보리를 그을려 먹는다 해서 나을 리 만무하고, 보리밥이야 농사가 잘 되건 아니건 늘 달게 먹었던 터다. 보릿가루를 내어 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여름철 배앓이 걱정보다 곯을 대로 곯은 속을 놀라게 하지 않고 곡식을 섭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채 익지 않은 보리라도 하루빨리 입에 넣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것은 이유가 되었다.

망종 무렵의 보리는 길고도 질긴 보릿고개의 끝에서 겨우 잡은 생명줄. 청보리를 베어 곡식을 내는 '풋바심'에는 숱한 이유를 대고도 가려지지 않는 다급한 진심이 숨겨져 있다.

슬프고 또 그만큼 찬란한 푸르름을 먹고 되살아나는 계절. 그 억센 힘으로 다시 땅은 일구어지고, 그 위의 삶도 계속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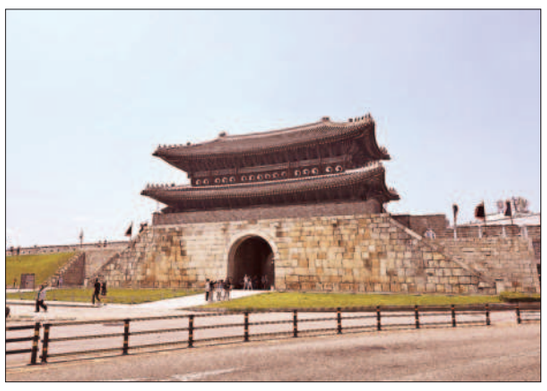
물을 다스리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자리한 화성(華城).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원천을 중심에 두고 수원 중심부 일대를 둘러싼 아름다운 성곽이다.

수원화성은 1794년(정조 18년) 2월에 착공해 1796년에 축성된 것으로, 정조는 화성을 중심으로 정치·군사·상업·농업이 하나 된 강력하고 철저한 계획도시를 꿈꿨다.



일곱 칸의 홍예문 위에 세워진 누각 화홍문. 수문 사이로 시원스레 흐르는 물줄기가 장관을 이룬다.



수원화성 장안문.



방화수류정과 용연.



화성행궁 안에 자리한 사찰 수원사.

아버지 추존왕 장조(사도세자)와 부인 헌경왕후 홍씨를 합장한 현륭원. 또 그 곁을 지키는 용주사를 창건하며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그 꿈은 무엇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다.

〈홍재전서〉와 〈일성록〉에는 정조가 농업정책을 직접 지휘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는데, 즉위와 함께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도 기존 농서의 보완과 기술의 확산이었다. 화성 축성과 토지 개혁 사업에 사용된 거중기, 녹로 등의 실학적 성과도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평생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강조했다는 정조의 신념은 화성행궁을 짓는 과정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1794년 화성 축조가 한창이던 때, 가뭄으로 흉년의 기운이 들자 정조는 화성 성역을 전면 중단할 것을 엄명했다.

그 자신조차도 '만일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나아감만 있고, 미루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 할 만큼 필생의 염원으로 삼았던 화성 성역화 사업. 하지만 백성의 고달픔 앞에 그는 과감히 욕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농업 진흥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농민, 아니 조선의 경제적 자립을 향한 토지 개혁의 시작이었다.

"곡식을 얻고자 하나 가뭄이 들면 헛일이 되니, 수리(水利)를 다스리는 것이 곧 민생을 다스리는 일이다." 〈정조실록〉

정조가 생각한 농업 개혁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리 체계였다. 그는 수원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즉각 대규모 저수지 건설에 돌입한다.

가장 먼저 1799년(정조 23년)에 '만 섬의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의 만석거를 축조, 이후 현륭원을 지키는 남쪽의 만년제, 영원히 만석의 꿈을 축원한다는 서쪽의 축만제, 그리고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진 동쪽의 지동저수지까지. 수원의 동서남북에 대규모 저수지와 관개용 수로를 설치하고 인근의 황무지를 차례로 둔전(국영농장)으로 개간한 것이다.

놀랍게도 가장 첫 단추를 낀 만석거의 대유둔은 몇 해간 이어진 가뭄을 극복하고 1만 석의 소출을 내는 성과를 낸다. 이는 상업, 군사 영역까지 조선의 또 다른 바퀴를 구르게 한 마중물이었다.

신명한 그들을 위하여

보통의 둔전은 관의 노비들이나 빈민들이 개간하고, 대부분의 수확물을 국가가 걷어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일반 농민과 실직자들에게 경작권을 개방하고, 농사를 잘 지은 이들은 관리직을 주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었다. 부호들에게 농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며, 축만제는 관과 민이 함께 농사를 지어 군수자금과 국가 운영자금으로 융통해 나라 살림에 보탰다. 빈곤 구제, 국방 재정 확보, 자립 기반 형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화성의 만년제 공사는 백성 한 사람의 힘도 쓰지 않고서 며칠만에 완성했으니, 참으로 큰 다행이다. 만석거를 만들고 대유둔을 설치할 당시에는 백성들이 모두 이를 좋아하지 않아 누차에 걸쳐 권유하고, 타일러 수만금을 들여 일을 시행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땅이 더 넓지 않다며 백성들이 원망한다. 그러나 지극히 신명한 것이 또한 백성들이니, 뒤에 의당 나의 고심을 알리라." 〈정조실록〉

저수지 축조와 개간 사업 비용을 자신의 내탕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정조. 실록에 남겨진 그의 목소리에는 무사히 완성된 개간 사업에 대한 기쁨, 또 이래저래 변덕스러운 백성들에 대한 작은 한탄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하지만 그에게 백성이란 신령스럽고 이치가 밝은 '신명한 존재'. 그가 꿈꾼 모든 미래와 새로운 나라, 그곳의 시작과 끝은 모두 백성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은 여전히 번화하고, 성곽은 아름답다. 정조가 다스린 물은 저수지만이 아닌 터라 화성행궁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수문을 통해 흐르는 수원 천변을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다.

북수문의 시원스런 물줄기 위에 자리한 저 아름다운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이제는 적을 감시하는 군졸 대신 삼사오오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수원천을 따라 그곳을 향해 걷다 보면 문득 눈에 띄는 수원사. 화성행궁 안에 자리한 몇 개 사찰 중 하나인 이곳은 정조가 꿈꾼 새로운 세상, 그 속의 또 다른 유토피아처럼 존재한다.

그 언젠가 백성의 배고픔에 눈높이를 맞추려 했던 군주의 마음과 선인의 자비심이 물길을 따라 하나로 이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했던가. 하지만 그 또한 나라님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을 근 300년 전 한 애민군주의 치열했던 꿈을 통해 배운다. 풍년을 기원하는 망종은 푸르른 계절, 농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어린애가 젖줄을 놓치면 죽듯 자부처의 젖줄을 놓치지 말라

… 융통성이 없기에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지능이 발달돼야 한다' 또는 '우리가 지혜로써 무기를 삼아야 한다' 이런 문제 등등이 있을 때 모든 지혜가 스스로서 부풀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법당에 있을 때는, 만약에 예배를 올린다 이럴 때는 부처님 앞에 몽땅 갖다가 한군데다 놓고 예배를 올린다. 자기는 비우며 살아라 이겁니다. 또 그때에 다 갖다가 하나로 뭉쳐 놨다가 자기가 참선할 때나 이럴 때는 순간, 갖다 놓고 절을 했다가…, 자기한테 절을 한 거지마는 그것이 자기만이 아니에요. 일체가 다 들어 있는 한마음의 한 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상구보리요, 아래로는 하화중생이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복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그 뜻을 잘 알아서 행할 수 있는 대로 행해 본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참선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처님 앞에 오면 부처님 앞에 절도 하지마는 예배 올리고 난 뒤에 고할 때에도 항상 부처님 앞에만 고하고 있습니다. 관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융통한 그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릴 때는 내 마음을 탕 비우고서 갖다가 놓고 예배를 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관할 때는 다시 몽땅 갖다가 내 마음속에 놓고 관하는 것입니다.

저 꽃나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꽃나무가 되려면 되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꽃나무가 내가 되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둘이 아니죠. 그쪽이 내가 됐다가 내가 바로 그쪽이 됐다가 이런 융통성이 없이는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융통성이 없이는 항상 둘 셋으로 돌아가지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잘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하루, 보름 이렇게 설법을 하고 또 이틀 사흘 되는 날도…. 우리가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밝은 그 불씨를 얼마만 하게 내가 지혜롭게 쓸 수 있느냐. 지혜를 내느냐. 또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관해서 자기 생명수의 그 근본을 발견하느냐.' 이게 문젭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 앉아서 관하고 참선을 하는데도 망상이 수없이 떠올라. 몸뚱이는 여기 앉았는데 벌써 마음은 집에 가서 애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남편하고 어쩌고저쩌고 또 친구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장사하는 일 또 집에서 안 되는 일 뭐, 이런 것이 담뿍 들었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지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은 근본에서 해결이 돼야지, 근본이 아닌 이상, 즉 말하자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뿌리가 싱싱하다면 가지도 싱싱하고 이파리도 싱싱하거늘, 그리고 이파리가 싱싱하다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건만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파리 시든다고만 걱정을 하고 또 가지가 썩어 들어간다는 생각만 한 거예요. 이것은 근본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도 이파리도 누렇게 썩어 들어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내 몸과 같은 겁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데도,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장사를 하든지 또 회사를 하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먹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싱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에서 해결을 해서 스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뿌리 없는 뿌리기 때문에,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마음만 먹는다면 그 슬기로운 마음에서 수없이, 이파리의 잘못된 벌레 먹은 거 또는 그 가지의 벌레 먹은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뭐냐 하고 망상에 찌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근본의 그 생수 맛은 도저히 맛볼 수도 없거니와 그 생수로 인해서 말짱히, 벌레 먹은 거나 썩어 들어간 거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데도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내 법을 그냥 활용할 수 있을 때 부처님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금과 같고 옥과 같아서 금으로 다듬고 옥으로 모든 일들을 활용할 때 우리는 초가삼간을 지어 놓고서도 충성, 효도를 다해 가면서 수없는 나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참, 나물을 먹고 팔 베고 누웠어도 대장부 살림살이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좁아터진 마음, 아주 옹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어느 시에 편안한 날이 없어.

그리고 또 신도 여러분 중에서도 집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야 천차만별로 많겠지마는 그런 것을 근본에다가 만약에 맡겨 놓으시고 모든 것은 거기서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체 없는 자기의 수천수만이 체가 없는 금과 같은 빛으로서, 부처님의 빛으로서 다 찬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네들이 지내는데 항상 얻어먹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오는 거를 먹고 그저 절만 받고, 절을 받으면 자기가 받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모순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절을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당신의 마음들을 탕 비우고서 갖다 놓고 절을 할 때에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는 거지 부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항복시키고, 자기가 자기에게 항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사실대로 알면서 자각해 들어간다면 머지않아서 한국 불교도 생동력 있게 대성황 할 수 있는, 삶의 보람을 여러분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불교가 될 겁니다. 그것이 불국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지마는 배우는 분들도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지력과 지혜로운 마음을 융통성 있게 내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알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환경에 따라서, 내게 줬다면 바로 네가 있는 것이 내가 되고 그럴 때에 이 불성이거든요.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빚을 받으러 가는 데도 때에 따라서는 '너 이놈, 두고 봐라. 너 얄미워서 내가 돈을 꼭 받아야겠다, 오늘은.' 이러고 가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둘로 본다면 아니 됩니다. 언제나 슬기로운 마음으로써, 없다면 '없는 것을 어쩌겠나.'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내게 주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바로 이 주인공이 저 주인공을 불러서 그쪽으로 줬을 때, 나는 빈 그릇만, 입만 가서 놀렸는데 그것은 나이기 때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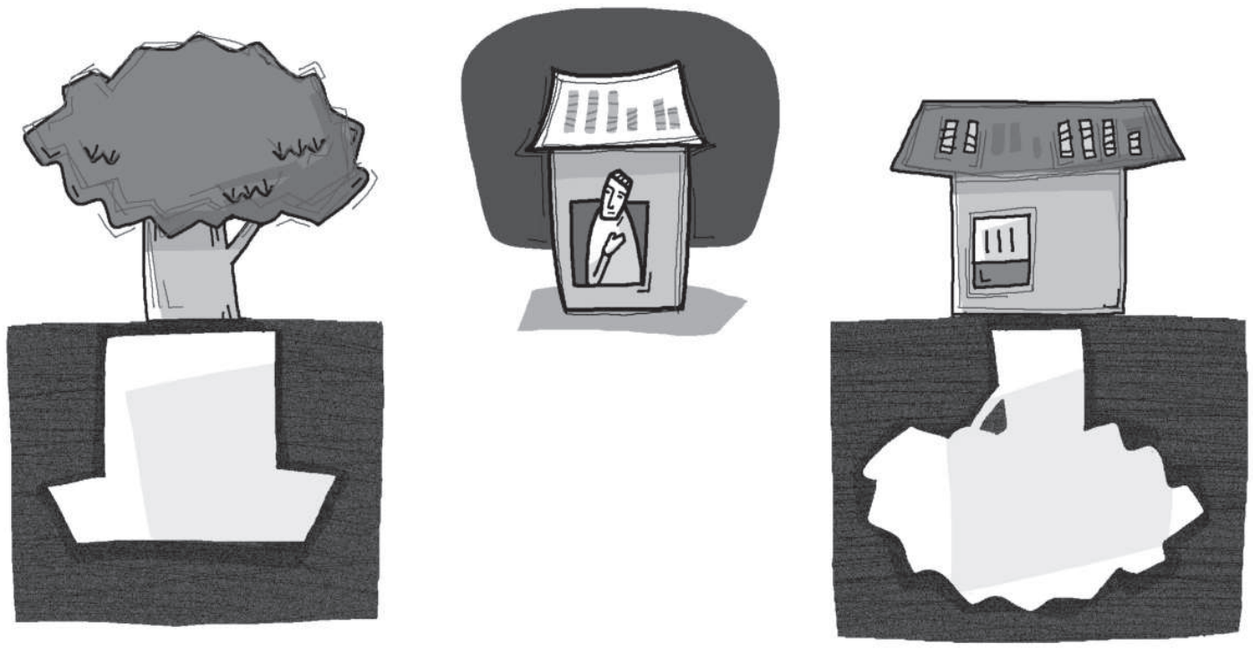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밝은 불씨를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문에, 바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슬기로운 마음으로써 자비가 생겨서 자기 죽이는 일은 없거든. 자기를 자기가 멸시하는 일이 없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 없고, 자기 못되게 하는 일은 없기에 그 마음이, 자기가 화해서 "아, 그렇지. 내가 줄게." 이렇게 나오지, 나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그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이 부처님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지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좁고 넓고 옹졸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칠백 공안이 그렇게 있지마는 여러 가지로 넓게 직선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구덩이를 메워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지로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다 중동무이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주는 거를 전부 내가 받는 줄 알고, 나는 머리 깎고 승복을 입었으니까, 스님이니까 부처님 제자임에는 틀림없고, 부처님의 대리로서 내가 하는 거니까 부처님 대리로서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오든지 서슴없이 받아먹고 서슴없이 그렇게, 어떠한 의미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많이 받고 욕심 많게, 먹는 것도 받는 것도 조금도 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의심 없던 거는 좋았는데 함부로…, 남의 땀을 몰라. 남의 안타까움도 모르거니와. 그런데 자기가 받는 게 아닌 줄을 몰랐고, 남한테서 자기가 받는 것을 받는 걸로 알고 주는 것을 주는 걸로 알았으니 이것은 잘못돼 돌아간 거라. 그러다가 어느 해에 스승도 열반하시고 제자도 늙었으니 죽었죠? 그런데 제자를 채 가르치지 못한 채, 자기도 배우지도 못한 채 이렇게 가다가 열반 당시에 얼마 안 돼서 생각이 퍼뜩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이 퍼뜩 일어나서 그것을 다 일소에, 모든 것을 깨닫고 열반을 하셨지만 자기 제자는 캄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대로 죽어서 옷을 벗고서는 가난한 집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에서 조실부모를 하고 농사를 지어 먹게 됐고 그 스승은 참, 위대하다고 본다면 부처님 자리에 같이 한자리 하셨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연에 따라서, 제자가 자기 탓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탓도 아니고 그 탓도 아니지마는, 그래도 길잡이로서 제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만 그 집의 암소로 소 형상을 쓰고 거기에 소 새끼로 잠시 잠깐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소로다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소를 끌고 이렇게 다니며 송아지를 길러서 소를 만들고, 소는 팔아먹고 그 송아지 태어난 걸 가지고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는 애대로 셋이나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만 소하고 제자였던 주인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발에 똥 옴이 올라서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다 죽게끔 생겼어요. 그것도 역시 이유가 있기에 그렇겠죠.

그런데 하루는 소도 아주 그냥 농사짓느라고 그것만 끌고 다녀서 어려우니까 소 발 밑에 왜, 지금 뭡니까? 장식 끼우는 거, 그거를 제대로 못 끼워서 그냥 닳아 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 형편이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소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꾸 발짓을 하는데 입으로 "음메 음메" 하면서 자꾸 이 옷자락을 쥐거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이 옴이 올라서. 그러니까 소도 놀리고 자기도 영 움죽거리지 못하니까, 조그만 애들 농사짓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농사지을 수도 없는 거고, 부인이 끌고 다니려도 부인은 애들을 길러야 하고 그러니까 참 살기가 급박해졌더랍니다.

근데 하루는 그렇게 자꾸자꾸 소가 끌어요. 그래서 소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냥 소가 하염없이 가더랍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끌려가니까 어느 물이 내려오는 데에, 썩은 골창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인 데로 소가 가더니만 거기에다가 발을 쓱 담그더랍니다. 발을 쓱 담그며 구부리고 앉더니 다시 일어나서 주인을 끌어 잡아당기면서 시늉을 하니까 그대로 몸을 그 물에다가 자꾸 씻고 담글 수밖에. 그래서 거기에 담그니까 몸이 시원하면서 그 병이 점점점 나아 가는데, 이 집에서는 어디 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아 가는데 잠이 혼곤히 들었어. 그랬는데 그 소는 바로 자기 전자의 은사였고 자기는 바로 제자였죠. 그런데 자기는 그 뜻을 모르니까 세상에 다시 내려보내져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낸 거죠. 그런데 은사 그분이 "저기 좀 쳐다봐라." 해서 보니까 거기는 전부 송장 썩은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송장 썩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은사 말이 "네가 전자의 내 제자였고 내가 너의 은사였지. 은사였기에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서, 길잡이를 제대로 못 해 줬으니 길잡이를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내가 소 몸을 타 가지고 또 너한테 왔느니라. 내가 갈 때가 인제는 됐어. 그런데 저 송장 썩은 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지수화풍으로 나왔다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할 때 그 물과 불 또 바람, 이 흙이 전부 사람들의 거름이 되고 사람들의 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느니라. 이것은 모두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없어서는 아니 되지마는 죽어서까지도 다 주고 가느니라." 이거야. 다 준다, 되돌려준다 이거야.

> 우리가 예배를 올릴 때는 내 마음을 탕 비우고서
> 갖다가 놓고 예배를 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관할 때는
> 다시 몽땅 갖다가 내 마음속에 놓고 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발을 담그고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그 썩은 물 자체가 바로 내 한마음의 태양과 같고 약과 같고, 약도 되고 태양과 같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태풍은 바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람은 바람으로 막아 주고 흙은 흙으로 막고 불은 불로 막고 물은 물로 막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부 스스로서 이 마음에서 지혜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이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깨달았으면 나를 따라서 오라." 하고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소는 그대로 옷을 벗었답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혼곤히 잠을 깨 가지고선 생각을 하더니 옷 벗은 소를 붙잡고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울다가 울다가 보니까 자기 병은 다 낫고 싱그러워진 그 마음속이 너무나 밝아서 훤히 자기가 어떻게 지내 왔다는 거, 지금 이렇게 온 거를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변장을 해 가지고 자기를 인도한 그 소 모습을 몇몇 일을 땅을 파서 묻고 돌아서서 자기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버리고 절을 향해서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사명 대사도 부인과 자식을 홀랑 태워 버리고 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 질러서 태워서 태운 게 아니라 정말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로 태워 버렸대도 태워 버린 게 아닙니다. 진짜 태우는 거는 그렇게 태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불 질러 버리고 가 버린 그분은 마음 한생각으로써 그 아들들을 정승까지 이르게 했답니다, 그 스님이.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농사철에 아버지도 가 버리고 그랬는데 그 삼 형제가 정승까지 한 것은 길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고 가니까 그만 정승의 집에 양자로다가 갔어요. 자식 없는 데 양자로 가 가지고선 그렇게 크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자기가 버리지 않은 아내도 전부 잘되고 그렇게 했지마는 그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이 스님은 항상 안팎으로 언제나 마음을 융통성 있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한생각을 내는 반면에 그것은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이겠죠.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며, 스스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부처님의 뜻을 아신다면 우리들의 그 아픈 마음과 더불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한결….

오늘날 여기에서 공부하시면서, 부처님이 저렇게 계신데 그전에는 형상이다 이랬지마는 지금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직껏 공부하셨으니까 "저 형상인 부처님도 내 형상이요, 내 형상도 저 부처님 형상이니라."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형상도 변질이 돼 가지만 저 형상도 변질이 돼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저 형상도 내 형상이다' 이러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저 형상도 내가 돼 보고, 예를 들어서 내 내공의 부처님이, 자부처님이 저기 한데 계시고, 때에 따라서 관할 때는 여기다 넣고, 내가 여기에서 떠났을 때에는 항상 여기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떠나서는 아니 되고 떠나서 관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애가 젖줄을 놓치면 죽듯이 그 젖줄을 영 놓치지 마셔야 하는 일이 있음으로써 나중에 커지면 젖줄은 스스로 놔집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노력하면서 가정에서 급한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에서 급한 거를 빨리 해결을 하도록 근본을 찾아야 그게 빨리 해결이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결을 하려도 급하게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의 그 체가 없는 참마음의 자부처는 원자력 에너지와 같아서, 발전소와 같아서 어디로든지 가설이 된 데는 다 연결이 돼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일이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아, 미국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걸 귓결에 들었습니다. 그 귓결에 들은 그 순간입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귓결에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런데 와서 맨날 고하고 고하고 해도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마음이 그만큼 여기에 집중이 되지 않은 사람은 멀고 집중이 된 사람은 가깝습니다.

한 체가 있는 몸에서 체가 없는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수천수만이 돼서 그 모습을 바꿔서 환경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항상 중생으로서 고를 놓지 못하고 아마 항상 휘달릴 겁니다. 윤회에도 그렇고 업보에도 그렇고 유전에도 그렇고, 그 어떻게 삽니까, 이루종차. 지금 우리가 요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주 죽겠는데 자식 대까지 물리면서까지, 또 그렇게 살아온 그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 모두를 몰락,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몰락 놔 버려서 아래 위가 다, 삼세가 다 공하고 공해서 참, 공한 도리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응용하고 여여하게 용을 한다면, 용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스스로 아마 밝아서 우리 살림살이가 궁색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궁색하지 않은데 어찌 살림살이가 궁색하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6월 7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본 수 14:30 재 금 20:30 / 토 22: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⑪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 보기

장미꽃이 '나쁜 놈'?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잠시 '아는 마음'이 바탕 자리(허공)와 하나가 되어 머물렀다. 버스에서 내리니 길가에 장미꽃이 피어 있었다. 장미꽃을 보는 순간 "나쁜 놈"이라고 중얼거렸다. 이게 뭐지? 장미꽃이 왜 나쁜 놈일까? 바로 그 순간 반야(통찰지)가 발사되어 마음이 일어나는 전개 과정이 낱낱이 '분해'되어 보였다. 무고한 장미꽃이 결국 나쁜 놈이 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자.

(1)장미꽃을 보다(6근과 6경 중 안근眼根과 색경色境이 만나다. 촉觸이 일어남). → (2)'예쁘다'라고 느낀다(수受가 일어남). → (3)'저걸 찍어야 하는데'라는 인식이 일어남(필자는 불교 유물을 약 30년 넘게 촬영하고 다녔기에 예쁜 것을 보면 조건반사적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 습관적 소유욕이 발동한다). → (4)'아, 참! 그런데 못 찍어. 결혼하고 나서는 육아에 가사일에 카메라를 아예 들고 다닐 수가 없어.' → (5)'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좋을 텐데.(그러면 예전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을 텐데)' → (6)'너무 가정일에 무심한 거 아니야? 정말 힘들다.' → (7) '(남편) 나쁜 놈.'(분노의 행行이 일어남)

애! 이게 '반야'구나!

장미꽃을 보자마자 나의 인식 작용은 이처럼 번개같이 일어나 나쁜 놈이란 결론과 함께 분심이 올라온다. 이것이 바로 '오온'이구나! '색(色)-촉(觸)-수(受)-상(想)-행(行)-식(識)'이 빛의 속도로 전개된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이 생겨나는 것을 반야로 통찰하지 못했다면, 떠오른 상(想: 인식, 분별, 이미지)으로서의 남편이 실재인 줄 알고 분노로 반응(행行)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내 업장이 되어 무의식은 오염일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운영되는 과정,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상(實相: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통찰하는 것. 아! 이것이 '반야'의 힘이구나! 오온이 연기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과정을 보니, 더 이상 그것에 속을 일은 없다. 실체 없는 허상이었다. 우리의 뇌는 바보라서 '생각으로 떠오른 남편(이미지)'과 현재 소파에서 뒹굴고 있는 '실재하는 남편'을 구분하지 못한다.

'생각만 해도 부아가 난다'라는 말이 있다. 그저 '생각'일 뿐인데, 그것에 반응하여 '화'를



존재가 분해되어 보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강소연

내는 우리의 습관적 메커니즘을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존재의 메커니즘을 불교에서는 '오온(五蘊)'이라고 한다. 오온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지만 이것이 오온이 아니라 '오취온(五取蘊)'이 되어 스스로를 오염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생각'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무상과 무아라는 본성을 드러내며 허깨비처럼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난 생각에 반응하여 감정적인 고락(苦樂)을 스스로 자초한다. 반야(통찰지)로 관(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탐(貪)·진(瞋)·치(痴)에 계속 놀아날 수밖에 없다.

마음이 '반응하는 과정'을 낱낱이 보다

일어나는 순서는 '치→탐→진'으로 전개된다. 일단 '내가 있다'라는 '치(무명, 어리석음)'는 디폴트값이다. 연기(緣起)되어 일어난 현상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모두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을 고정불변의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유신견(有身見)을 낸다. '있다'라고 착각(치)하면서 그것을 소유하여 유지하기 위해 '탐(갈애, 취착)'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내 몸이 있다' 또는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진(분노, 성냄)'을 일으킨다.

위에 예시로 든 마음의 전개 과정은 '오온'이 어떻게 '오취온'이 되어, '치-탐-진'으로 반응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2)번의 (장미꽃이) '예쁘다'라고 느낀 '수(受)'의 단계에서 이미 에고(자의식)가 개입되어 호불호(好不好)의 느낌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에고는 더욱 기승을 부려 무의식 저장고 속의 기억과 느낌, 억압과 집착을 건드려 끄집어낸다(유식唯識 사상에서는 에고를 말라식이라 하고, 그 이면의 무의식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식으로 표현화된 내 기억 속 요소들[상想]이, 마치 실재하는 양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행行]하게 된다. 만약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오온의 전개임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화를 냈을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은 '또 왜 그래?'라고 했을 것이다. 장미꽃이 부른 참사이다.

장미꽃은 죄가 없다. 그것을 보고 반응한 나의 반응체계가 오염되어 있던 것이다. 이러한 오염된 반응체계의 발동을 〈대승기신론〉에서는 '염법연기(染法緣起)'라고 한다. 이는 '청정한 진여의 마음에서 무명의 마음이 일어나 어떻게 점점 거칠고 어둡게 변화해 가는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⑪ 살 빠지는 주사, 원리와 사용법

몸·마음 착각 이끌어 체중 감소

"살 빠지는 주사 삭센다 처방전 받아 가면 약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삭센다는 요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품절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위고비는요?"

"네. 그건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인데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의약품이라 처방전을 접수해야 알 수 있지만, 한 달 분에 40~50만원대 이상은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히이이이익!"

축생의 소리를 내면서 고객이 뒤돌아서 약국을 빠져나간다.

바야흐로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부쩍 체중 조절에 관련된 문의가 많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비만 치료 주사제로는 위고비와 삭센다가 있는데, 위고비의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이고, 삭센다의 성분명은 리라글루타이드(Liraglutide)이다. 이름이 비슷한 이 둘은 같은 계열의 약물로 우리 몸에서 같은 작용을 하여 체중 감량 효과를 가진다.

살펴보면, 우리 몸속에 GLP-1(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라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위고비와 삭센다이다. 이 문이 열리면 우리 몸은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 체중이 줄어든다.

첫 번째 변화는 호르몬 분비 조절이다. GLP-1이라는 문이 열리면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을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이 주사들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당뇨 치료 과정에서 체중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이 주목되어 용량을 높여 비만 치료제로 새롭게 승인받은 제품이다. 부작용이 싫어도 체중감소가 부작용이라면 오히려 좋다.

두 번째로 중추 신경계 조절 효과인데,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GLP-1 문이 열리면 다이어트의 가장 큰 걸림돌인 식욕이 감소하고 포만감이 증가하게 된다. 밥을 안 먹었지만 배부른 상태로 인식하게끔 뇌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섭취하는 음식이 줄어들게 되고 자발적인 체중 감량이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로 이 약물들은 위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해 음식 배출을 지연시키는데, 이로 인해 포만감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무조건 '빠르게 빠르게'를 부르짖는 현 세태에 느림의 미학은 실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GLP-1 문이 활짝 열리면 신체는 지방 연소를 촉진해 체지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 감소 효과를 강하게 나타내는 비밀 열쇠가 바로 위고비와 삭센다이다.

그렇다면 이 두 약물의 차이는 뭘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이며, 삭센다는 매일 한 번 맞는 주사이다.

"어떻게 주사를 매일 맞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약들은 병원에서 맞는 주사와 다르게 집에서 스스로 주사가 가능하다.

임상 결과를 보면 위고비는 약 15% 정도의 체중이 감소되었고, 삭센다는 5~8%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맞고 체중감소 효과도 더 좋은 위고비가 당연히 더 좋은 약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위고비는 고용량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인 만큼 발현 속도가 느리고 부작용이 더 심하게 생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고비는 가격이 착하지 않다.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만큼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있다.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간 어떤 분은 흡사 입덧을 하는 기분이라고 호소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분은 남자였다.

위장관 운동 변화로 인해 설사나 변비, 복통과 복부팽만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두통과 피로감이 생기기도 한다.

드물게 췌장염이나 담석증이나 담낭염 같은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복부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주사를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가족성 갑상선 수질암 또는 다발성 내분비샘 신생물(Multiple Endocrine Neoplasia) 2형 병력이 있는 사람은 이 주사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체중 조절은 전 인류의 숙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살 빠지는 약은 사실 BMI가 27~30 이상 되고 과한 체중으로 인한 병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마른 사람들이 군살을 빼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는 말이다.

BMI가 30 이상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 남자 키 173cm 기준으로 91kg 이상, 여자 키 162cm 기준으로 77kg 이상 정도 되면 BMI 가 30 이상이다.

이런 주사는 몸과 마음을 착각하게 하여 식사를 줄여 체중을 줄이는 것일 뿐이니, 그것보단 우리 불교의 단식고행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단식고행은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굶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자기를 극복하고, 진리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고비와 삭센다는 식사를 줄여줄 뿐이지, 깨달음을 얻지는 못할지니.

고가의 주사제보다는 체중 조절과 깨달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단식고행이 오히려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닐까? 지금 당장 주사기를 내려놓고 우리 동네에 보리수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자.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전법 일기

뇌졸중 1년 만에 의식 회복
굳건한 불심에 불보살 가피

화창하고 아름다운 일요일, 서미사 법회에 갔다가 삼 년여 만에 지 보살님을 다시 뵈었다. 왼팔은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느리며 약간은 절뚝거리셨지만, 휠체어 없이 법당을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 보살님은 칠십대 중반이시지만 조용한 말씨와 자비로 가득 찬 인상으로 서미사 불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다. 매주 일요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던 지 보살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1년 넘게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 계셨다. 마치 식물인간처럼 지내다 정확히 1년 만에 눈을 뜨신 것이다. 모두의 간절한 기도 속에, 불보살님의 가피로 기적 같은 회복을 맞이하신 것이다.

뇌졸중 환자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 보살님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또렷이 알아보셨다. 혀가 굳어 말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눈빛으로는 또렷한 의사 표현을 하셨다.

그동안 지 보살님의 쾌유를 위해 서미사 주지 일면 큰스님과 불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 그 정성에 불보살님께서 자비로 응답하신 것이다.

지 보살님 가정의 깊은 불심은 지역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40여 년, 초기 이민자로서 온갖 고생을 겪으며 살아오셨다. 교회의 집요한 전도 탓에 '불자'라는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던 시절, 특히 개인 사업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던 불자들은 한인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으로 인해 사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절에 몰래 다녀야 했고, 결국 교회로 돌아서는 이들도 많았다.

지 보살님의 불심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통도사 아래 마을에서 살던 지 보살님의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많은 자녀를 키우며 살았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소작농으로 번 수입으로 제일 먼저 공양미를 마련해 초하루와 보름마다 영축산 가장 높은 암자까지 머리에 이고 올라가 공양을 올리며 기도하셨다.

이러한 불심과 기도 덕분에 큰오빠는 "쌀밥 한 번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라며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미국 시카고에서 저명한 의사가 되어 가족을 모두 이민 초청했다.

지 보살님도 시애틀에 정착했고, 1983년 일면 큰스님께서 시애틀 근교에 서미사를 창건하시자, 가장 먼저 달려갔다. 미국 땅에 한국 절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불보살님의 가피로 여기며 법회마다 참석해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 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굳게 믿고 서미사를 찾아 꾸준히 기도해 오셨다. 그 깊은 신심의 결실인지, 큰딸은 워싱턴 주에서 유능한 검사로, 아들은 뉴욕에서 연극 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지 보살님은 삼 년 만에 다시 법당을 향해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오직 굳건한 불심으로 불보살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기에 가피를 받아 가능했다고 말씀하신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⑯ 대화법 특강: 존중의 햇살 ③

'동감' 아닌 '공감'으로 마음 주고받기

관계 회복을 타이틀로 한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해 서로 오해가 깊어져 단절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 어렵게 속마음을 꺼내 놓고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엉켰던 마음을 풀어냅니다. 하나 신기한 것은 그간 상대를 향했던 분노와 서운한 마음이 속마음을 꺼낸 이후에는 금세 상대에 대한 미안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게 한 치의 예외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슬픔, 외로움은 실은 안전하게 속마음을 꺼낼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대화법 특강의 전부입니다. 가시투성이인 밤송이를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해 알밤을 떨어뜨리는 것은 오직 따뜻한 햇살과 시간뿐입니다. 경청하라는 대화법 안내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실천할 때만이 따뜻한 햇살이 되기에 굳이 '존중의 햇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가끔 교실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A4용지 하나를 뭉쳐 종이공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캐치볼을 합니다. 강속구와 변화구를 던져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상대와 잘 주고받을까를 궁리합니다. 이런 캐치볼은 마치 마음을 주고받는 일과 같습니다. 그 순간 온전히 상대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말속에 담긴 메시지와 속마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공감의 의미를 착각해 공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던지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서로의 친밀감을 내세워 상대에게 던져버리고는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화는 캐치볼처럼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안전하게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상대의 공을 받지 않고는 자기의 공을 던질 수 없습니다.

속마음 꺼낼 데 없어 관계 단절
안전하게 속마음 꺼낼 수 있도록
주의 기울이고 기다리는 대화여야

공감은 공명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기타 줄 E를 튕기면 그대로 E의 음을 느끼고, A를 튕기면 그대로 A를 느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상대가 튕긴 눈빛, 표정, 목소리 톤의 기타 줄 음에, 있는 그대로를 함께 느끼면 됩니다. 반면 동감은 상대의 의견이나 감정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공을 던지기 위해 내심 받는 척할 뿐입니다. 상대의 공을 자꾸 떨어뜨리기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상사에게 친절하게 인사했는데 못 본 척 지나쳐서 속상했어."라는 말에 "맞아, 맞아. 내가 그 기분 알지."처럼 어느새 화제의 주체를 자기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완전 진상이네." 같은 말도 잘 살펴보면 감정의 초점을 상대에게서 자기감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했는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처럼 동료끼리 잘 지내고 싶은 욕구를 함께 읽어줘도 좋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늘 캐치볼을 생각해 보세요. 공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기다려주는 일이 나와 당신을 위한 사랑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불교평론 여름호(통권 102호)는 '불교, 생명윤리를 말하다'를 특집으로 다뤘다. 6가지 주제의 전문 기고 중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안락사에 대한 논고였다. 자발적 존엄사는 이미 사회적 화두가 된지 오래다.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82%에 달했다. 심지어는 조력 존엄사가 합법인 스위스로 가려는 한국인이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 완화치료 권위자인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한 게 자기결정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하는 대로 죽을 수가 없다"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비류잉(畢柳鶯) 대만 타이중 병원 재활학과 교수의 저서 〈단식 존엄사〉가 번역·출간돼 화제가 됐다. 이 책은 저자의 어머니가 시행한 '단식 존엄사' 과정을 술회하고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사망자결권)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오래되고 낡고 찢어진 옷은 바꿔 입어야 하는 것처럼 육체도 망가지면 이와 같은 이치다. 죽음이란 이처럼 간단하며, 신비하거나 어두운 일이 아니다"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처럼 불교에서 죽음은 금기의 대상이 아니다. 부처님도 자신이 "낡은 수레와 같다"고 고백하고 석 달 후에 열반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모습이 〈대반열반경〉에 그려진다.

불교와 유사한 자이나교에서는 단식 존엄사 방식의 '살레카나'라는 수행법이 전해지며, 죽음을 예견하고 맑은 의식으로 화두를 지키며 좌탈입망했다는 선지식들의 일화도 우리는 접할 수 있다.

2022년 암을 발견한 뒤 스스로 곡기와 물을 끊으며 원적에 든 연관 스님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가를 되새겨보게 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논의는 어떠한 종교보다 불교가 다양한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새 정부, 불교 전통서 공존 가치 배우길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장미대선으로 불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는 막 발걸음을 떼고 역사의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는 최근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혐오와 대결을 지양하고, 공존과 화해 그리고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는 다짐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년의 시간동안 경제적으로도, 정치·사회적으로도 숨 가쁜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는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버려도 되는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과 경쟁을 부추기는 극단적 갈등을 극복하려 한다면, 함께 공존하는 통합의 사회를 성취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고, 불교는 그 중에서도 우리 역사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진행형의 살아있는 문화'이다.

많은 문화유산이 말 그대로 유산(遺産) 곧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하지만 불교는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존과 화

'잘사니즘' 내세운 李 대통령
'함께 잘사는 세상' 기치 내포
불교 '不二' 정신 되새겨 봐야

해 그리고 소통의 가치를 추구해 온 불교 본연의 정신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불교문화는 전통적 가치와 미래의 가치적 변화를 동시에 품고 있다.

새 정부가 막 시작되는 지금, 한국불교의 불교적 사유와 불교문화 전통이 가진 가치를 굳이 강조하는 까닭이 있다. 함께 하고 서로 배려하며 그래서 공존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일구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며 경쟁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돌아보면 그 이유는 자명하다. 화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얻는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내세웠다. 나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십분, 백분 공감되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 공감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남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나만큼이나 남도 소중하다'는 생명존중의 가치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불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고, 또 여전히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와는 다른, 타자에 대한 존중'이 소중함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효·의상·균여·지눌·무학·휴정·만해 스님 등 우리네 선지식들이 그러했다.

우리 역사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불교의 선각자들은 늘 '나와 남의 공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흐름으로 새겨졌다.

막 출발하는 새 정부의 지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새 정부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마다,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왔던 전통의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린 왜 '환수유산박물관'을 만들었나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5월 24일 오전 10시, 이순신 장군 묘소가 있는 충남 아산 음봉면에서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 앞서 박물관 개관에 노력한 인사들이 모여 고유제를 봉행했다.

"16개국 21곳의 문화 의병이 결집하여 존귀한 역사를 품고 미래세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고유제 제문 중)

문화유산회복재단은 고구려 수막새, 9세기 신라 여래불상, 고려 문신 경휘의 묘지, 우암 송시열의 송자대전 목판, 조선시대 문수보살도 등 그동안 외국에서 환수한 문화유산 200여 점과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경남의 산서집, 1800년대 인구조사 자료인 경북 봉화의 호적단자,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피해 자료 등 1000여 점을 소개하는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을 5월 24일 개관했다.

박물관은 △환수유산전시실 △한국 문화유산이 소개된 외국 소장기관 도록 도서실 △정규홍 자료실 △국외문화유산 홍보실 △국제협력관 △특별전시실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 환수한 문화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박물관을 설립한 이유는 외국에 있는 문화유산의 환수에 있어 소장기관(인)이 믿고 기증·기탁할 공간의 필요성과 가치 활용 때문이다. 실제로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 민간 소장이 많이 있으나, 과거와 달리 소장인의 세대교체 과

5월 24일 아산서 '환수유산博' 개관
소장자가 믿을 만한 기탁처 역할
환수유산 활용한 청소년 교육 실시

정에서 유물이 헛되이 취급되어 버려지거나 은닉,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미국 등 몇몇 동포 소장가의 사망으로 환수 협의를 진행하던 중요 유물이 흩어지고 추적이 불가하게 된 사례는 박물관 설립을 빠르게 진행하게 한 계기가 됐다.

또한 가치 활용에 있어 청소년 교육은 세대적 연결과 가치 확산에 중요한 요소이다. 공유와 공감을 위해 구경 위주의 기존 박물관과 달리 환수기념박물관은 오감으로 실감하고 체험함으로 이해를 돕고 감수성을 높이고자 구성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교실로 찾아가는 문화유산 실감교육'을 실시했고 그 만족도가 90%가 넘었다. 하지만 교실 수업의 한계로 '더 많이, 더 오래,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 이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같은 박물관'으로 꾸몄다. 박물관에는 전통놀이인 윷놀이, 사방치기 등 다양한 놀거리도 마련됐다.

박물관의 또 다른 특징은 전시대, 책장, 책상 등을 친환경 종이 소재인 허니콤으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그림 등의 전시에 있어서도 가볍고 변형이 용이한 허니콤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은 '국제적인 활동'을 목표로 한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 가입 전 세계 피해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저개발국가의 환수를 지원하고자 한다. 축적한 환수 활동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확장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장이자 활동 공간으로서 '첫 사례'가 바로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이다.

社 說

이재명 대통령, 이젠 불교 공약 실천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당선 직후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달라"고 축하와 당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불교 정책 공약을 어느 후보들보다 빠르고 디테일하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 지원 △전통사찰 규제 개선 △연등회 전승관 건립 △문화유산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 완화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교류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며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약(公約)은 후보자가 국민에게 실행할 정책에 대한 약속이다. 공적인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정치인들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통령의 불교 공약이 헛된 약속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을 위한 범불교적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선기간 중 주요 종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속적 협의"와 "정례적 교류"를 약속했다. 이에 대한 이행은 이제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자비실천 30년, 시대 보듬는 복지 펼치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창립 당시 21곳에 불과했던 산하 복지시설은 현재 181곳으로 늘었고, 종사자는 5600명, 이용자는 200만 명, 예산 규모는 4000억원에 이른다. 활동 영역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노숙인, 국제구호 등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와 대학생 점심 식사 지원 프로그램 '청년 밥심' 등 시대 흐름에 맞춘 색다른 사업을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6월 11일 열리는 창립 30주년 기념 대법회에서는 지난 30년 간의 역사를 조명하는 〈30년사(史)〉와 복지법인 현황을 정리한 〈불교사회복지편람〉을 선보인다.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 구성 등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할 사업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30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다. 그동안 재단은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숙을 이뤄냈다. 이제는 다음 30년을 준비할 때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복합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복지의 개념도 진화해야 한다. 재단은 그간의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사업 운영을 넘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 불교의 전통과 현대 사회의 필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복지 모델의 중심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이 가닿길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염원이 복지재단을 통해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29주기 다례재 봉행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6월 4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종정 대륜 스님과 총무원장 혜일 스님, 재단 이사장 경원 스님, 명예이사장 일명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일붕 서경보 존자 열반 2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6월 11일

재)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5하계수련회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종도 스님들의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2025년도 하계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사암의 발전과 스님들의 법체 강녕을 기원하며,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13일(금)
- 장 소 : 보현정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솔목길 15-5)
- 담 당 : 지화 스님 (010-3525-7190)
- 회 비 : 15만원
- 준비물 : 가사 · 장삼, 개인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등
- 문 의 : 성혜 스님 (010-8082-9503)

불기 2569년(2025) 6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6월 1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수행화

行禪 전문 신발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 리 통 증
무 릎 통 증
어 깨 / 목 통 증
손목 / 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6월 16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 상담 : 1688-9099 ■ 신한은행100-036-429749(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